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독립위원회사무국

# 東學農民革命과

## 高敞과의 關係定立을 위한 學術會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창문

東學農民革命  
發祥地

때 : 2004년 10월 6일 14:00 ~ 17:30

곳 : 고창청소년수련관

주 최 : 고창문화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 관 : 동학학회

후 원 : 고창군, 천도교 중앙본부, 동학학회후원회, 대한문화재신문사

# 東學農民革命과

## 高敞과의 關係定立을 위한

# 學術會議



일 시 : 2004년 10월 6일(수) 14:00~17:30

주 최 : 고창문화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 관 : 동학학회

후 원 : 고창군, 천도교 중앙본부, 동학학회후원회  
대한문화재신문사

東學農民革命  
發祥地



# 東學農民革命과

## 高敞과의 關係定立을 위한 學術會議

때 : 2004년 10월 6일 14:00 ~ 17:30

곳 : 고창청소년수련관

### 제1부

- 개회식 (14:00 ~ 14:30)  
사 회 - 유덕근(고창문화원 이사)  
개회사 - 진남표회장(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축 사 - 이강수군수(고창군), 최석기의장(고창군의회),이철  
기교령(천도교)

### 제2부

- 학술회의(14 :40 ~ 17:30)  
사 회 - 崔根泳 박사(전 한국사학회 회장)

#### 주제 발표

1.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 운동  
발표자 : 李 炫 熙(성신여대 명예교수)
2.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와 무장봉기  
발표자 : 黃 善 嬪(상명대 교수)
3. 전봉준의 가계와 태생설에 대한 재조명  
발표자 : 李 起 華(고창문화원장)

- 토론자 : 1. 金 漢 植(국 방 대 교수)  
2. 金 正 義(한양여대 교수)  
3. 申 淳 鐵(원 광 대 교수)

고창사람들은  
의를 숭상하는 세차고 강직한  
선비의식의 바탕위에서  
국난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는  
초연이나 은둔이 아니라  
파감히 박차고 일어나  
구국의 선봉에 서서 살신성인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또한  
자주의식과 주체성이 강하여  
막다른 길에 이르면 크게 결집되어  
그 응집력은 항상  
민족정신의 거력으로 노출되곤 하였다.



#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 - 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

李 炫 熙

(성신여대 명예교수,  
동학학회 명예회장)

1. 서론
2. 社會經濟的 배경
  - 1) 開港후의 사회경제
  - 2) 帝國主義 침투와 경제적 변화
  - 3) 農村社會 피폐의 극대화
  - 4) 農村社會의 抗爭意識 태동
3. 敎祖伸冤運動과 반정부형태
  - 1) 東學敎團의 경영
  - 2) 公州狀辭
  - 3) 參禮集會
  - 4) 서울의 伏閣上疏
  - 5) 報恩集會
  - 6) 金溝集會
4. 全鐵爐의 胎生과 農民革命準備
  - 1) 출생지문제
  - 2) 전철로의 농민혁명준비
5. 결론

## 1. 서론

19세기 말 조선조는 정치·사회·경제적 모순과 외세의 침투위협 등 변혁의 분위기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노론 일당의 전제화로 변칙 운영되어 오던 조선조의 정치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외척세도통치 중심체제로 변질되면서 정치기강의 문란을 극대화시켰다. 이어지는 어린 국왕의 즉위로 국정을 위임받은 외척세력은 독단적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과거제도의 비리, 모순<sup>1)</sup> 매관매직의 악순환, 법도와 기강의 문란, 기근과 질병, 민심의 불안 등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sup>2)</sup>

이러한 정치기강의 문란과 관료의 부정 부패는 사회,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도 하였는데, 국가의 기본적 수취세제인 三政의 극심한 문란을 초래함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재정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더구나 기근과 질병, 한발, 홍수, 요연 등이 겹치는 중에 기우제가 성행하였으며, 화적, 초적, 홍적, 청과적 등 각종 도적이 빈발, 횡행, 분탕이 우심하였다. 이때 괴언, 참언, 벽서사건 등이 발생하여 민심은 분란에 빠져 있었다. 아울러 지도원리인 유교의 타락·퇴색은 양반사회의 지도이념이나 생활규범으로부터 유리, 변질됨으로 일부 선각지식층에 의해 비판을 받았고, 민중들에게는 더 이상 확고한 지배이념을 통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세동점적인 물리적 침투는 고요하였던 조야의 민심을 동요케 하고 변란을 가중시켜 갔다.

이처럼 19세기 전후부터 인팍으로 매우 혼란, 당혹하고 부패한 현실을 극복하여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하면서 득도된 것이 유일하게 메시아같은 수운 최제우의 동학과 그 사상이었다. 이에 동학의 보국안민과 인내천, 제폭구민, 광제창생, 시천주사상은 당시 조선사회의 대내외적 위기를 민중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정신구원적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수운이 흑세무민의 죄명으로 처형 순도된 후(1864) 동학은 지배세력으로부터 사교로 규정, 탄압을 받았고, 지방수령들은 邪學을 금한다는 명분아래 동학교도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잡아 가두는 등 횡포가 자심하였다. 이에 1890년대 들어 이미 해월 등이 수습하면서 계승 유지하였던 동학교단은 교조의 억울한 죄명을 풀고 합법적으로 동학을 공인받기 위한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원운동은 공주집회를 비롯하여 삼례집회, 서울 광화문 복합상소로 이어졌으나 오히려 정부의 동학에의 탄압은 더욱 극심,

1) 『철종실록』, 철종8년 윤5월 기사조

2) 이현희,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92, 45쪽

철저해지고 관리들의 횡포 또한 더 기증해지니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은 보은집회, 전봉준이 참가한 금구집회를 거치면서 점차 반봉건, 반외세 즉, 척왜양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동학농민혁명투쟁의 이념적, 조직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고부와 고창을 중심으로 정부의 착취탄압에 맞선 고창태생 동학 접주 전봉준(철로·병호)의 농민혁명준비는 마침내 극복할 수 없는 고부민란을 겪다가 1894년 3월 21일 대규모의 제1차 동학농민혁명을 동지와 같이 고창 무장에서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한국사회의 현실적 정치상황과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교조신원운동의 전개과정을 동도대장 전철로의 혁명투쟁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社會經濟的 배경

### 1) 開港후의 사회경제

1876년 2월 우리나라에서 대안없는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타율적 개항은 당시 동양의 여러 후진적 국가에서도 당했던 역사적 경험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가 완성되기도 전에 일본의 무력적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큰 타격을 받았다. 19세기 당시 일본은 구미선진국가에서 직물류의 상품을 수입하여 조선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일본에 대한 의도적 강제 개항은 그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만이 아니라 세계 선진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일본을 매개로 하여 심각하게 종속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개항을 계기로 일본뿐 아니라 청국과 서구열강의 압력을 받았다. 이때 일본과 청국으로부터 가해진 압박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강압을 통한 제국주의적 무력에 의한 침략수법이었던 것이었다.<sup>3)</sup>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일본에 의한 강제개항이후 청국을 비롯한 구미열강과 차례로 치명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되어 갔다. 즉 조일수호조약에서 관세자주권의 상실, 일본화폐의 유통과 곡물수출의 허용이 이루어졌고, 1882년 조미수호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에 이어 1883년 수정체결된 조영조약을 계기로 서울, 양화진의 개방과 내지통상권이 허용됨으로써 불평등조약체제하의 우리나라의 시장은 서울은 물론 내륙지방까지 외국자본에 따라 불가불 순차적으로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의도적 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은 아직 미진하나 국내의 경제 분업체제에 의해

3) 신국주, 『근대조선정치사연구』, 박영사, 2004, 26-27쪽



형성되었던 종전의 수공업적 상품생산과 유통구조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그중 가장 심각한 변화는 일본에 대한 미곡의 유출로 인한 농업환경과 그 경영의 낙후된 변화였다. 개항 이전 조선조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농업에서의 상품생산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의 상품화폐경제도 확대 변화되었다. 특히 지주의 대농장경영은 19세기 중반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농민항쟁으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었다.

그러나 1876년 개항이후 곡물수출의 증가와 미곡가격의 폭등현상은 당시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 후기 지주제의 사기를 강화 제고시켰다. 이때 주요 개항장(인천)을 곁에 두고 있던 강화도의 지주들은 미곡교역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토지를 사들여 대지주로 성장하였다.<sup>4)</sup> 호남지역의 지주도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포구와 내륙으로 연결되는 다원화된 시장을 통하여 미곡의 시장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커다란 상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시 지주들은 직영지를 확대하고 소작경영을 강화하며, 精米를 통한 상품화과정을 장악하여 지주제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여 나갔다. 지주들은 직영지를 경영하는데 있어 신분적 관계에서 벗어나 노비나 雇工, 임금노동층을 동원하였다. 또 소작지 경영을 볼 때 빈번하게 作人을 교체하거나 마름에 대한 통제강화를 통해 지대수입을 높였다. 따라서 지주층은 특별히 증대된 소작료 등을 고리대나 상업에 투자하는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자본을 축적해 나갔고, 이를 다시 토지에 투자하여 대규모토지를 소유,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세한 소작농민들은 지주들의 직영지의 확대와 소작경영의 강화로 인하여 그 입지를 빼앗겨 점차 몰락, 피폐해 갔다. 예를 들면 토지 경작규모도 10두락에서 5두락 내외로 줄어들어 열악하였다.

그리고 미곡의 유출로 그의 상품화가 이루어졌고, 기선, 윤선 등 발달한 근대적인 운송수단의 활용으로 상업적 농업이 기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농경영이 성장하여 갔는데, 부농의 성장으로 농촌의 반농들은 농업에 있어 점차 도태, 종속되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해 갔다.<sup>5)</sup>

하지만 부농경영의 성장은 지주제와 대립되었는데, 곡물의 수출은 미곡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면서 경작면적의 증대와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부농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잉여의 부분을 거의 외세(일본 상인)와 지주층에 의해 수탈당함으로 부농형태의 경영은 위기속에 순탄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19세기 미처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 체제의 유입에 따른 급격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조선 농촌사회의 급속한 불안, 소외, 냉소와 함께 사회경제의 재편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주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이익을 획득하였으나 소농

4 홍성찬,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연구」, 『한국사연구』33, 1981

5 이윤갑, 「개항-1894년 농민적 상품생산의 발전과 갑오농민전쟁」, 『계명사학』2, 1991

층이나 빈농층은 상대적 빈곤에 따라 강제적 시장체제로의 편입으로 생산물을 수탈당하여 그 기반의 상실로 급격히 몰락해 갔다. 즉 지주층면의 상품생산은 성장한 반면, 박대받던 농민층의 상품생산은 쇠잔해 갔다. 이와같이 외세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체제로의 강제 편입은 전통사회의 민족적 모순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봉건적 질서상의 지주와 소작인간의 극심한 간극, 대립과 모순도 심화시켰다. 농민층의 불평불만이 증만하였던 사회경제적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sup>6)</sup>

## 2) 帝國主義 침투와 경제적 변화

19세기 일본에 의한 강제의 타율적인 개항 이후 주요 개항장을 통한 대외무역의 확대로 상품의 유통경제도 점차 성장,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이래 내부적으로 성장하던 화폐경제가 확대된 결과라기 보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가 도입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는 조선이라는 시장을 제국주의 국가의 이윤을 창출, 소득케 할 수 있는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일본과 청국 상인들에 대한 1882년 한성개항권과 내지통상권의 허용, 유통제고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들은 특히 영국제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중개무역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조선에서의 표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한 수탈적 무역이었다.<sup>7)</sup> 또한 이들은 시전상인의 전매품목까지 거래하였으며 현대화된 기선과 같은 근대적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조선연안의 유통망을 장악, 국내상권에 산만하게 침투하였다.<sup>8)</sup>

이렇게 일본과 청국 상인들은 수출입 대상품목뿐만 아니라 국내 상품의 유통에도 침투·교란하여 조선상인의 상권마저 탈취하면서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를 공고히 구축하여 갔다. 이때 일·청국 상인은 서로 취급하는 상품이 비슷하여 침투상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1885년 이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까지 조선은 일본과의 교역액수가 높았는데, 청국 상인은 수출무역에 중점을 둔 반면 일본상인은 자본재 상품과 함께 미국수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조선은 청국과의 교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sup>9)</sup> 이는 조선의 시장이 일본상인에 있어서는 상품을 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원료공급지로서의 임

6) 임종철, 「동학혁명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 앞의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92, 403-419쪽

7) 하원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1998, 48-59쪽

8) 나애자, 『한국근대해운업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78-86쪽

9) 임종철, 앞의 논문

무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권은 부산 이후 원산, 인천 등 조약에 의한 3개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또 이는 유통구조의 확대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였다. 즉 교조신원은 동이 고개를 들던 1890년대를 전후하여 곡물수출의 중심지가 부산에서 서울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잇점에 따라 점차 인천으로 이동함으로써 상품유통권이 서울중심으로 점차 개편 확대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조선상인들은 제국주의의 수탈적 상품유통구조가 형성됨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의 시전상인들은 일본, 청국 등 외국상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직접 점포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상권을 침해하자 그들의 점포철수를 요구하는 동맹철시를 시도하였고, 조선후기 전국의 해상유통망을 장악하였던 경강상인은 일본기선의 세곡운송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특이한 松商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한 개성상인이나 평양상인들은 발빠르게 종전의 상권을 이용해 수출입 유통업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이북지방의 상권을 장악하였다.<sup>10)</sup> 그리고 지방에서 포구중심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포구주인이나 여각, 객주들은 외국상인들이 근대적인 기선, 운선을 이용하여 포구시장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점차 종속되어 제국주의 상품경제에 밀붙이면서 겨우 연명하여 갔다.

또한 당시 개항장에는 그곳을 중심으로 한 객주가 성장하였는데, 객주는 본래 상품의 유통을 중개하면서 봉권세력과 결탁, 그 특권과 이득을 누렸던 상인계층이다. 이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자 객주조합을 결성하여 나라에 상업세를 부담하는 대신 특권상인층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1880년대 후반 외국상인들의 조선내에서의 직접적인 행상이 활발해지면서 객주들이 장악하였던 상권이 점차 취약해 갔다. 이에 조선정부는 객주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항장인 인천항에 과감하게 상품유통을 독점하는 이른바 25객주 전관제를 실시하였으나 외국공사관의 항의와 소상공인들의 저항으로 이는 결국 철폐되었다.<sup>11)</sup> 그리하여 시전상인이나 경강상인 등 조선의 전통적인 巨商들은 점차 위축되어 갔고, 포구시장권을 장악한 객주, 여각층은 일본, 청국 등 외국상인들에게 기생하는 상인들로 전락해 갔었다.<sup>12)</sup>

개항이후 새로운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으로 농촌도 화폐경제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어 갔다. 즉 1876년 개항 이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 약 20년 시기까지 조선에서 소비된 면포는 그의 절반정도가 그 지역에서 자급 자족하였으나 나머지는 수입면포거나 다른 지역에서 생

10)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11)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일조각, 1970, 50쪽

12) 『한국사』17, 1973, 56-65쪽

산한 제품을 구입, 충당함으로써 면포가 상품화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상품의 거래영역이 확대됨으로 화폐유통도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화폐유통량의 증대와 재정의 악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1883년이래 당오전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명목가치가 5배라 하였으나 실질가치는 2-3배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내에서는 당오전이 유통되는 지역과 종전의 엽전이 유통되는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당오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황해도, 충청도, 강원도 연해지방 등에서 통용되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엽전이었던 당일전이 유통되었다. 그리고 1891년부터 당일전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평양전이 발행되어 당일전이 유통되던 원산, 부산 등지에게까지 퍼져 당일전의 가치마저 폭락되는 거품현상을 일으켰다. 이처럼 악화가 남발됨으로서 1892년 즈음에는 당일전과 당오전, 평양전이 같은 가치체제로 통용되었다.

특히 개항이후에는 일본의 화폐유통이 허용됨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화폐유통권이 재편성되었으며, 일본화폐에 의한 조선의 화폐가 낮게 평가되어 엽전시세가 성립되기도 하였다. 이에 곡물수출가격을 엽전으로 지급하던 일본상인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반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물가가 폭등함으로 곡물을 사서 생계를 꾸려 가던 조선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임금노동자나 하급관리, 공인층 등은 몰락하는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물가유통에 큰 영향을 미쳐 농민의 체감경제를 압박하였다.<sup>13)</sup> 이는 정부가 악화를 남발함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일본화폐의 유통허용으로 일본 상업자본에 대한 조선상인들의 종속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sup>14)</sup> 즉 아직 봉건적인 상업구조에서 제국주의적 자본과 상품유통구조가 유입되면서 조선내 소상공인과 소상공생산자의 성장이 억제되어 침몰하였던 것이다. 또한 상품화폐경제는 봉건지배계층의 수탈을 강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조선내에 있어 민족적 모순뿐만 아니라 봉건적 계급모순까지도 심화시켜 나갔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속에서 차별대우 받던 동학교도와 농민들은 정부경제 정책에 노골적인 반감을 갖게 됨으로써 반정부적 난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 3) 農村社會피폐의 극대화

18세기 후반 조선조의 조세제도는 전정, 군정, 환정(환곡)의 三政체제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삼정체제는 지주제, 군현제, 신분제와 현물경제체제를 중심축으로 운영되었는데, 전정의 비총제, 군정의 군총제, 환곡의 還總制 등의 독특한 군현단위의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

13) 한우근, 앞의 책, 120-125쪽

14) 도면희, 「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 『1894년 농민전쟁연구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참조

되었다. 따라서 조세운영은 정부가 토지와 백성을 하나하나 파악하지 않고 군현단위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수취총액을 세금납부자의 증감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급격한 신분제의 변화와 농민층의 분해로 이어져 조세납부 대상이 줄어들게 되고 조세수입 능력이 악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정부가 군현단위의 조세액수를 미리 정해 줌으로서 조세수취의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취체제의 업무를 군현의 수령과 향촌의 지배세력에게 일임함으로써 이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 주며 조세수취를 통한 무제한적 수탈을 자행하여 갔다. 따라서 당시 부농층이나 지주들은 신분상승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세부담에서 벗어나고, 그대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는 빈농층에게 떠 넘겨져 조세수취의 불균등화가 심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9세에 들어서 농민계층은 봉건세력의 가혹한 조세수탈로 인하여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자 기존의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하거나 도망의 길을 택하였다. 이에 군현의 수령이나 지배세력은 한정없이 수탈을 감행할 수 없게 되자 군역에서 동포제와 군역전, 환곡에서 里還, 결환 등 면, 리 단위의 공동납부로 계획, 할당된 조세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도 부족한 군포와 환곡 등은 토지에서 부과하여 보충하였다.

이후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조세 대부분의 형태가 地稅化되어 갔는데, 그것은 신분제의 붕괴와 토지생산력의 향상 등 사회발전에 따른 것이었으며 향촌사회에서 신분제에 따른 조세수취운영이 어려웠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하겠다.<sup>15)</sup> 이와 함께 조세의 금납지역도 확대됨으로 대동포의 징수지역은 대부분 화폐납부로 전환되었고, 군포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납전으로 전환되어 갔다. 따라서 금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민들에게 화폐로 조세를 거두고 다시 현물로 구입하여 조세를 상납하는 세곡방납이 성행하였다. 또한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으로 환곡에서도 移質, 加作, 錢還 등 화폐경제를 이용한 농민수탈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세곡방납이나 환곡수탈은 당시 정부의 상품화폐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서리나 수령 등이 농민의 조세납부가 완전히 화폐로 전환할 수 없었던 약점을 간교히 이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순진한 농민층은 더욱 몰락해 갔고 허탈, 격분해 하였다.

이후 조세의 화폐납부와 조세운영의 화폐화가 진전되고, 조세의 지세화가 계속되면서 19세기에 나타난 도결제라는 새로운 조세운영방식이 나타났다. 도결제는 모든 조세를 한번에 화폐로 수납하였으며 기존의 민간조세 수취기구 대신 관청에서 조세수취기구를 직접 장악하여 조세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도결제는 이때 대부분의 군현에서 실시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조세운영이 봉건적 조세수취제도에서 근대적 지세제도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조세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봉건적 조세제도가 신분제나 지주제 등을 근간으로 하여 생산

15)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65쪽

력과 국가권력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면, 도결제는 신분제의 붕괴, 지주제의 확대발전, 토지생산성의 증가, 상품화폐경제의 농촌침투 등이 배경이 되어 형성된 조세수취체계였다. 그리고 도결제는 봉건적 국가권력의 향촌에 대한 지배력이 향촌 사회의 실력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료기구를 통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도결제는 전체적으로는 근대적인 조세수취를 추구하나 아직 봉건적 조세를 부과, 수취하는 제도가 지주전호제에 고정되어 있으며, 조세수취의 기준이 향촌공동체 내에서의 세력관계에 따라 조세수취의 불균등성이 이루어지기 쉬운 결부제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완전히 봉건적 기준 질서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와서 도결제는 조세의 지세화와 금납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점차 봉건적인 권력에 따른 조세불균형이 지양되고 균등한 조세부과를 추구하여 갔다. 하지만 도결제하에서도 총액제와 공동납입원칙이 지켜짐으로 조세액의 고액화현상은 빈농층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의 이탈로 조세부족분은 부민들에게 전가되어 갔다.<sup>16)</sup> 그럼으로 각종 특권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에서 면제되었던 부민들은 조세수탈의 주요한 대상으로 변화하였고, 신분적 특권이 더 이상 조세수취과정에서 작용하지 않게 되어갔다.

더욱이 19세기 개항이후 물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농민부담은 점차 늘어나 엄청난 조세결가의 고액화는 빈농층의 생산과 생활기반을 붕괴시켰고, 부농층에게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세불균등의 심화현상은 관과 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대결, 악화시켰고, 지주와 전호, 부농과 빈농사이의 계급적 갈등,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또 도결제는 각 군현단위로 달리 하였던 조세의 운영방식을 단일체제로 만들었다. 이후 대대적인 농민항쟁에서 농민계층이 힘의 다수를 인식하며 연대의식을 가지고 힘을 통해 반봉건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조건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1894년 전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은 대대적으로 폐정개혁안을 통해 탐관오리의 학·폭정을 제거하는 요구와 삼정의 폐단을 시정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시 농민들의 조세수탈의 시정요구는 군전의 남징을 금지, 洞布錢의 징액화, 결전의 매년 증액 금지, 臥還의 폐지, 진결가세의 금지, 세미의 무명加棒의 금지, 각종 烟役의 징발금지 등 제방면에 걸친 절실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조세수탈 문제는 19세기 향촌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다만 이는 봉건적 사회질서의 문란에서 비롯된 조세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제의 동요와 상품시장경제의 형성 등 중세적 사회질서의 해체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탈적 구조에 대해 최대 피해계층인 호남의 빈농계층이 주요 조직

16) 안병욱, 「부세의 도결화와 봉건적 수취체계의 해체」, 『국사관논총』7, 1990

적 저항세력으로 등장하여 투쟁하였던 것이다. 즉 조세운영에 대한 지주와 반농층의 모순이 전면화되었다기 보다 상품화폐경제를 둘러싼 이해계층간의 대립관계가 점차 첨예, 격렬화, 대결화되어 갔다고 평가하겠다. 동학혁명군의 개혁적 구호나 정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었다.<sup>17)</sup>

#### 4) 農村社會의 抗爭意識 태동

18세기 이후 조선 농촌사회의 지배세력이었던 사족지배체제는 점차 해체되고 대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권력(수령, 서리)이 농촌지배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종래 사족과 수령간의 상호 협조와 견제를 통해 향촌민을 지배하던 행태가 소멸되고 사족들은 수령지배하에 점차 종속되어 갔다. 또 일부 사족들은 향촌을 장악해가는 수령권과 결탁하여 변신해서 토호로 성장하였고, 새로운 향촌사회의 실력자로서 新鄕세력이 등장하였다.<sup>18)</sup>

그러나 신향세력이나 饑戶부민층은 종전 사족의 권력기반을 부정하고 또다른 형태의 새로운 지배세력의 기반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조세운영과정에서 관권과 결탁하거나 고리대 등으로 부를 축적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시대의 주체적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사회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동요계층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세기 조선후기 농촌사회는 사족중심의 지배체제 대신 신향세력과 새로운 요호부민층이 등장하는 등 사회구조가 점차 변동하였으며, 농촌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들의 대립, 대립은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내면에 깔려 있는 필연적 폭발성의 잠복상태였다. 대신 농촌사회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대립현상은 지주와 소작민, 수령과 조세운영을 둘러싸고 반발하는 요호부민층, 반농층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 대결, 갈등의 구도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19세기 농민층의 대정부 항쟁의식과 반봉건투쟁의 분위기가 고양,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sup>19)</sup>

19세기 이전 수령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은 전파작변, 송전방화 등의 방법이나 수령에 대한 위협행위 등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개별적인 비연대적 저항수준이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동네 농민들이 관청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정도로 지극히 온건하게 그치곤 하였다.<sup>20)</sup> 19세기에 오면 농민들의 투쟁은 呈狀, 呈訴운동의 형태로 나타나 수령이나 서

17) 이현희, 『동학혁명사론』 대광서림, 1988, 53-62쪽

18)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1998 참조

19) 이광순, 「갑오동학혁명의 정신사적 의미」, 앞의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288-300쪽

20) 한상권, 「18세기 중, 후반의 농민항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역비사, 1992

리 등 관권의 오류, 하자를 일일이 적어 소지를 작성하고 직접 수령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하였다. 이러한 정소운동은 19세기에 들어 많은 군현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는 농민계층안의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유식농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농민들을 대신해 소지를 작성하거나 조세문제 해결에 나서 주었는데, 1890년대초 고부민란단계의 선도자로서 동학접주이고 유학에 소양이 깊으며,<sup>21)</sup> 동학사상가·교육가였던 전봉준(철로, 병호)도<sup>22)</sup> 처음에 농민들의 억울한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토대로 所志를 작성해 주는 민원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sup>23)</sup> 당시 이러한 지식을 겸비한 선비풍의 농민층의 존재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제반문제를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기하고 해결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sup>24)</sup> 1862년(임술년)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농민항쟁이 남쪽 70여개 군현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식적 잔반계 농민층의 잠재적 존재를 통한 정소운동이 축적, 폭발케 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sup>25)</sup> 따라서 이들은 권력자들과 유착하여 유생층까지 포함된<sup>26)</sup> 의식과 정세를 판별하는 유식한 농민들을 수탈하는데 일조하는 일부 세력도 있었으나 농민항쟁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 농민계층의 지도자로 추대되어 선두에서 지도자로 농민항쟁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sup>27)</sup>

이와함께 19세기에 이르면 농민계층의 조직역량도 성장하고 있었다. 조세운영에 있어 도결제가 도입되면서 농민들이 조세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농촌지역 대부분에는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민회(里會포함) 등 농민집회가 있었다. 또한 생활공동체나 두레와 같은 노동공동체 등 농민들이 연대 규합할 수 있는 조직체가 운영되고 있었다. 더욱이 흥선대원군 섭정기에 두차례의 양요를 거친 뒤에도 농민항쟁은 계속 되었고, 섭정자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민씨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는 농민항쟁이 더욱 고양되어 녹두장군이 34세때인 1888년을 전후하여 이같은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sup>28)</sup> 이처럼 19세기 전후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농민항쟁이 일상화되어 가면서 축적된 농민들의 투쟁경험은 지식적 농민층에 의해 선도되어 농민들이 조직적 항쟁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지식적 농민층은 농촌사회의 조세운영 등 문제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농민대중을 세련되게 이끌어

21) 유영익, 「전봉준의 義勇論」,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1998, 1-28쪽

22)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73, 49, 55, 76쪽

23) 『전봉준공초』1865년(을미) 2월 21일, 再招問目

24) 이광순, 앞의 논문, 299-302쪽

25) 『日省錄』고종 15, 4.4-6.16

26) 『備邊司謄錄』, 고종8, 8.13

27)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정소운동」, 『국사관논총』43, 1993, 43-48쪽

28) 이현희,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삼영, 1997, 52-58쪽



농촌사회에서 매우 두터운 신앙을 얻고 있었다. 이 시기 농민항쟁은 이들에 의해 설득력있게 주도되어 갔다.

19세기 후반에는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농민항쟁 이외에 무장봉기를 목적으로 하는 병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즉 1869년의 광양란과 최시형이 특히 경계하고, 주의 유념하였던 1871년의 이필재(이필)의 반란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또 정감록의 도참비기사상에 근거한 변란도 자주 나타나곤 하였는데, 이는 농촌사회의 문제와 연결되었다기 보다 당시 정감록과 같은 선별적 이념에 따라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지식계층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sup>29)</sup>

그러나 19세기 농민항쟁의 흐름은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민란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그 집결체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집약해서 승화, 전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동학사상은 당시 농민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나서서 인내천·보국안민·제폭구민·광제창생·후천개벽·동귀일체·시천주를 성취하는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농민지도세력이 농민대중을 조직화, 주체화하여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반규합과 봉기의식을 제고하였다. 그것은 봉건적 지배세력에 의한 제수탈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적 침탈에 저항하는 보국안민적이고 주체적인 반봉건 반제국주의적 민족정체성 견지의 항거였다.

### 3. 敎祖伸冤運動과 반정부형태

#### 1) 東學敎團의 境域

19세기 들어와 조선왕조는 이상에서 고찰하였듯이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대소의 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인 1860년 4월 5일 경상도=경주에서 몰락양반, 잔반의 서자나 다름없는(재가한 과부의 아들) 수운 최제우(1824-1864)에 의해 동학이 득도되었다. 동학은 당시 극심한 정치적 부패, 가중되어 가는 조세수탈, 횡포와 폭력적 지배, 계급모순의 심화, 흉년과 흉수, 질병, 기근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속에서 피폐해진 하층민들에게 메시아로서의 큰 위안이 되어 그 속에 파고 들었다. 부패한 현실상황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미래와 함께 복지국가 건설의 이상향 추구, 그리고 정치질서를 제시하면서 농민대중에게 널리 포교된 동학은 당시 사회개혁을 바라던 선구적인

29) 신정암, 「정감록의 사상적 영향」, 『한국사상총서』 3 한국사상연구회, 1973, 512-522쪽

일부 지식인계층과 가난에 찌든 농민대중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인내천, 보국안민에 기초한 민족의 사상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와 윤리가 지배하고 있던 양반중심의 사회에서 개혁적 이념의 동학은 사이비로 이단시되었고, 개혁적 지식인층과 하층농민을 중심으로 심화, 이해된 동학의 교세가 급격하게 확대되어가자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863년 12월 관에 의해 체포된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는 결국 사이비 사상(左道)으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좌도혹민지올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을 쓰고 이듬해 3월 10일 대구 감영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이처럼 수운이 혹세무민의 혐의로 처형된 이후 동학의 교세는 잠시나마 위축되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해월 최시형(1827-1898)에 의해 교단정비에 노력하다가 1870년 후반에 이르러는 교단의 지도체제가 재정비 확립되었고, 동학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간행되어 크게 고무되었으며, 동학의 주요 종교제도와 의식이 확립됨으로 그 교세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80년대에 들어서는 단양, 괴산, 청풍, 충주, 청주, 옥천, 보은, 송주, 목천, 예산 등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가 확대되어 갔다. 그후 30여년간 도망자로서 해월의 살신성인적 포교와 동학교문정비, 전도에 따라 강원 홍천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신도수도 늘어났다.<sup>30)</sup> 이와같이 증가하는 동학의 교세는 당시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봉건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학교세가 확장되고 있던 각 지방의 수령들은 지속적으로 동학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즉 1880년대 이후 동학교단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탄압은 소위 邪學을 금지한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동학교도들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죄목을 씌어 체포 구금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학교도들은 탄압을 피해 도망과 피신을 하거나 석방금을 내고 풀려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동학교단을 지켜 나갔다.<sup>31)</sup>

그러나 1890년 초에 들어서면서 동학교단은 교조신원운동이라는 합법적인 청원운동을 전개하여 동학을 국가로부터 공인받고자 노력하였다. 즉 교조신원운동은 1864년 左道惑民之律에 의해 처형당한 동학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려는 범종단 운동으로서 교조의 신원은 곧 동학의 공인과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중대한 교단적 사업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학교단은 국가법에 보장된 伸訴제도를 통해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집단적 시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 2) 公州狀辭

30) 이현희, 『해월 최시형연구』, 『동학연구』창간호, 1998

31) 박맹수, 『최시형연구-주요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890년대 초 동학교단이 처음 교조신원운동으로 공주취회를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1871년 4월 29일 동학교도들에 의해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李珣濟의 제청으로 발의되어 결단을 내린 신중성을 기했던 해월의 동원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영해부관아를 습격하고 부사 李政을 처단한 병란적 방법으로 전개되었다.<sup>32)</sup> 영해는 수운이 접소를 설치하고 접주에 박하선을 임명한 곳으로 일찍부터 동학이 전파된 곳이다. 그는 영해에 와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동학교도들을 만나 교조의 억울한 희생을 말하자 호응이 많았다. 마침 부사 이정의 부정 비리 탐학행위에 격분하고 있던 터에 이필제의 제안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그는 영해지방의 동학교도들과 만나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은 뒤 해월을 설득시켜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sup>33)</sup> 그리하여 1870년 10월 이인언이 해월을 만나 이필제의 말을 전하며 교조신원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해월은 아직 나설 시기아 아니라고 거절하였다고<sup>34)</sup> 주장했으나 결국 이해하고 관에서 석방된 서인주, 서병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sup>35)</sup>

이듬해 2월 이필제는 영해에서 해월을 만나 간청하기를 교조신원운동의 거사에 대한 결단적인 지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하였다.<sup>36)</sup> 해월은 박춘서 등을 만나 다시 한번 논의한 뒤 거사를 승낙했던 것이다. 이후 해월은 각지의 교도들을 동원하는데 적극 힘을 썼으며 무기나 식량을 마련하는데도 자금을 동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거사계획을 마친 이필제는 동년 3월10일 교조의 수형일(순도)을 기하여 심기일전, 각지로부터 모인 500여명을 이끌고 영해부를 습격하여 군기를 빼앗고 부사를 잡아 참형에 처한 후 상주로 진격하고자 하였다.

거사의 급보에 접한 경상감사 金公鉉, 안동부사 박제관, 영덕현감 鄭世愚 등은 각각 官?로 무장된 관군을 거느리고 이필제를 반격하였다. 관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필제는 영양 일월산으로 잠시 퇴진하였으나 다시 관군이 추격해 옴으로 이필제는 다시 영양 일월산으로 도주하고<sup>37)</sup> 부하 장사만 南基祥 등 100여명이 관군에게 체포되기에 이르렀다.<sup>38)</sup> 또한 이로 인해 피해당한 동학교도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때 해월은 단양(鄭錫鉉), 영월(鄭一進) 영양 등지의 교도집으로 전전 피신하였다.<sup>39)</sup>

해월과 이필제를 비롯한 동학 간부들은 위기로 인해 각기 해산함으로서 영해교조신원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해 8월 이필제는 다시 정기현 등과 거사를 모의하고

32) 박맹수, 「교남공적해제」, 『한국사학』10, 1989 참조

33) 표영삼, 「신미교조신원운동의 분석」, 『신인간』 457호, 1988, 4-9쪽

34) 『崔先生文集遊記書』, 『東學思想資料集』壹, 1992

35) 박맹수, 「동학교조신원운동」, 『한국사』39, 1999, 285쪽 『박응삼자료』제2편

36) 『천도교백년사』상권, 124쪽

37) 오지영, 앞의 『동학사』 제2장 2. 신미사변

38) 『천도교창건사』13쪽

39) 오지영, 『동학사』제2장 신미사변

문경읍을 습격하려다가 관군에게 체포당하여 12월 서울 서소문 밖에서 47세의 나이에 참형을 당하였다.<sup>40)</sup>

한편 수운의 일가가 그의 순도뒤인 1874-6년 사이 옥사하거나 병사하였으니 장자 世貞과 차자 世淸이 모두 타계함으로써 그의 혈통이 단절되고 만 것이다.<sup>41)</sup> 그러나 해월은 역경을 극복하고 1884년 경전을 간행, 전포하였다.<sup>42)</sup>

그후 1892년(포덕33) 진사 10월 서인주와 서병학은 해월을 찾아가 다시 한번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월 또한 당시 각지의 수령과 이서들의 탐학에 사달리며 피폐해 있던 교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여 교조신원운동을 허락하는 “신원의 대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요지의 立義通文을 하달하였다.<sup>43)</sup> 동년 10월 17일 하달된 입의통문의 내용은 각 접주와 동학교도들에게 신원의 대의에 힘을 쏟아 합칠 것을 촉구하는 간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신원의 대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해월의 입의통문이 각지의 접주에게 전달된 후 충청감사에게 수운의 신원을 호소하기 위한 公州議送所가 설치되었다.<sup>44)</sup> 그리고 각 접주는 誠德信義知事之道儒를 인솔하고 공주의송소로 와서 청주(손천민의 집)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려 처사,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sup>45)</sup>

공주의송소에 모인 각 지방 접주들과 교도 1천여 명은 10월 20일경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義送單子を 작성하여 충청감영에 보냈다. 그 의송단지에는 동학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처형(순도)의 신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학의 만연현상 및 일본 상인의 부당한 약탈 침투행위를 비판하는 보국안민적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방금 서양 오랑캐의 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뒤섞여 있고 왜놈 우두머리의 독이 외진에 도사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절치부심하는 일이다. 심지어 왜놈 상인들은 각 항구를 두루 통하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는 이익을 저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니 돈과 곡식이 마르고 백성들이 지탱하고 보전하기 어렵다. 심복같은 땅과 인후같은 장소의 관세 및 시장세와 산림과 천택의 이익마저 오로지 바깥 오랑캐에게로 돌아가니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손은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바이다.”<sup>46)</sup>

40) 『동학혁명100년사』상, 1994, 408쪽

위기에 빠진 해월은 소백산중 진곡리 朴龍傑의 도움으로 근엄 착실하게 40일 기도와 설법을 베풀었다.

41) 『천도교창간사』 제2편

42) 연갑수, 「이필제연구」, 『동학학보』6, 2008

43) 『동학사상자료집』貳, 436쪽

44) 『海月文集』

45) 당시 청주는 해월 최시형이 은신하고 있던 송산 손천민의 집을 말하는 것으로 손천민의 집에는 손천민, 서인주, 서병학 등 신원운동을 주도하는 동학 주요 간부들이 해월의 명령을 받고 비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46)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동학서』, 여강출판사, 1986, 64-65쪽

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나타난 척왜양의식은 이후 삼례취회(1892.11)와 광화문 복합상소(1893.2), 보은취회(동 3), 동학농민혁명운동(1894. 3) 같은 일련의 시위 단계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같이 강력한 주체의식인 왜양배척과 동학금단을 구실로 한 횡포, 수탈을 엄금해 줄 것을 요구한 의송단지를 받은 충청감사는 10월 22일 답변서에서 동학을 금하고 금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조정의 처분에 달린 것이므로 감영에 와서 호소할 일이 아니라고 냉정한 금지의 뜻으로 답변하였다. 또 10월 24일에는 각 군현 수령들에게 동학을 금한다는 명분으로 가림주구, 토색하는 월권행위를 금하는 조치를 담은 甘結을 하달하였다.<sup>47)</sup> 이러한 충청감사의 감결내용은 사실 동학교단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으나 동학득도 이후 정부의 탄압과 체포위협에 시달려온 해월이 동학금단을 구실로 한 수령이나 이서, 토호들의 수탈행위를 금하겠다는 충청감사의 처리, 회유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충청감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평화적인 동학의 顯道운동으로서의 공주취회는 집단적인 呈訴형식으로 전개함으로 인해 희생자는 없었다.<sup>48)</sup> 물론 본래의 교조신원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동학교도에 대한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금한다는 감결을 얻어냄으로 공주취회를 주도하였던 동학교단에 용기가 생기고 보람과 희망이 엿보였다. 그러므로 교조신원운동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된 공주취회는 이후 삼례취회를 비롯하여 서울 광화문복합상소, 보은취회, 금구집회 등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희망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公州狀辭는 이후의 취회에 크게 희망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49)</sup>

### 3) 參禮集會

공주취회를 통해 지방관리들의 수탈을 금하겠다는 충청감사(조병식)의 감결을 얻어낸 동학 교단의 지도세력은 그 성과를 크게 자체 평가하였다. 이에 당시 충청도와 함께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자심하였던 전라도에서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여 공주취회에서와 같은 어느정도의 성과를 얻어내고자 재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해월 등 동학교단 지도세력은 교동이 좋은 전라도 삼례역을 집결장소로 택하여 대규모 평화적 집회를 갖기로 결의하였다.<sup>50)</sup>

47) 위의 책, 69쪽

48) 이광순, 「동학의 현도운동」, 앞의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260-268쪽

49) 『朴應三資料』, 제2편 참조

50) 『天道教會史草稿』, 15장

이에 1892년 10월 27일 밤 전라도 삼례도회소 명의로 삼례에 집결하라는 동학 교단의 동원령이 담긴 敬通이 각 포에 발송되었다.<sup>51)</sup> 동 경통에서는

錦營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完營에 의송단자를 내는 것 또한 천명이다.

라고 하여 삼례집회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한편 중요한 교단적 모임에 참여치 않으면 따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하늘로부터 큰 죄를 받을 것이라며 동학교도들에게 설득과 함께 간절히 전원 참여를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10월 29일 이후 전라도 각지에서 이 설득을 듣고 삼례로 몰려들기 시작한 동학교도들은 11월 1일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수천명을 헤아렸다고 한다.<sup>52)</sup> 이어 11월 2일 姜時元, 손천민 등은 최시형의 재가를 받아 전라감사 이경직에게 「각도유생의송단자」를 제출하여 수운의 원한을 풀어 주도록 간청하였다. 이에서 동학교도들은 “수운선생이 상제의 명을 받아 유불선 삼도를 합해 하나로 만들어 한울님을 지성으로 섬기며 儒로서는 오륜을 지키며 佛로서는 심성을 다스리고 仙道로는 질병을 제거케 하였다.”라며 동학의 종교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수운이 무고한 흑세무민의 죄목으로 처형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그 억울함을 풀어 대도를 뗏뗏이 세상에 들어낼 수 없었던 원한을 호소하였다.<sup>53)</sup> 또한 동학을 윤리도 없고 분별도 없는 서학과 함께 구분없이 마구 이단시 취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독 동학에 대해서만 힘을 기울여 배척하는 행위는 옳치 않다고 극명하게 설득조로 지적하였다.<sup>54)</sup> 계속하여 지적하기를

열읍의 수령들이 (교도를) 빗질하듯 잡아 가두고 재산을 토취하여 쓰러져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더불어 호민들마저 칩학에 가담하여 도인(동학교도)들이 정처없이 떠돌며 살 길이 없게 하고 있다..... 서양 오랑캐의 학과 왜놈 우두머리의 독이 다시 외진에 들어앉아 날뛰며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sup>55)</sup>

라며 동학교도에 대한 지방수령과 토호들의 탄압과 토색을 강하게 질타하고, 국내를 혼란케 할 외세의 창궐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보국안민과 동시에 척왜양의 자립자강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라감사에게 전달한 의송단자의 주요 내용은 동학은 서학을 배격하

51) 앞의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동학서』, 70쪽

52) 『천도교회사초고』15-16장 참조

53) 위의 책, 71-72쪽

54) 위의 책, 72쪽

55) 위의 책, 73쪽

고 충군효친,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사상임으로 정부가 다른 도에 대해 간여치 않는 것과 같이 동학의 포교에 대해서도 공인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보국적 주장이었다.

그러나 의송단자를 받은 전라감사는 그로부터 옛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가부의 반응을 보 내지 않았다. 이에 동학교단 지도세력은 11월 7일 의송단자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송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11월 9일 답변을 보내오기를

너희 동학은 나라에서 금하는 바이다. 사람의 심성을 갖추고서도 어찌하여 正學을 버리고 이단을 좇아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인가. 소장의 내용인 즉 동학을 널리 포교토록 허용하기를 바랐으니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곧 물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sup>56)</sup>

는 거척의 내용이었다. 답변을 받은 동학교도들은 크게 격분, 실망하였다. 그러자 11월 11일 전라감사 이경직은 동학은 공인하지 않은 채 “감결을 통해 동학 금단을 빌미로 한 오직 지방수령 방백들의 토색질을 금한다”는 지시를 내렸다.<sup>57)</sup> 이에 동학교단은 다음날 원영도회소의 명의로 도는 비록 나타났으나 신원은 아직 풀지 못하였다는 경통을 내려 해월의 지시를 기다리며 귀가하라고 긴박하게 해산을 명하였다. 이어

1. 처신과 행사는 도리에 합당했으니 이제부터 더욱 도리에 힘쓰자
2. 삼례취회는 대의명분에 떳떳하니 해월선생이 직접 지휘하지 못한 것을 달리 생각하지마라.
3. 이후 무단한 탄압이 있을 경우 訴狀 등을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라
4. 도리를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는 엄히 책망하라
5. 일찍부터 대의에 참여, 살림이 어려워진 교도들을 함께 도우라

는 행동강령도 하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열흘간에 걸쳐 전개하였던 삼례취회는 막을 내렸고, 完營道會所는 철수하였다. 삼례집회를 종료하고 회중의 결의로 해월에게 法軒이라는 권위의 존칭으로 추대한 것은 큰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sup>58)</sup>

그러나 이러한 동학교단 지도세력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도들이 해산하지 않고 더 진전을 위해 다음 차례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11월 19일 북접도주 명의로 된 통문에서 “임금께 복합상소할 계획을 다시 도모하려 하니 다음 조치를 기다려 달라. 서로 도와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하여 합심해 이론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삼례취회에

56) 위의 책, 75쪽

57) 위의 책, 77-78쪽, 앞의 『동학사』 제2장 6 신원운동

58) 이광순, 앞의 논문; 전개서, 273-274쪽

집결하였던 동학교도들이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은 11월 21일 이후로 볼 수 있다.

삼례취회는 제2세 동학교조인 법헌 해월이 직접 주도한 신원운동으로 집단적인 대중시위 집회를 통해 동학의 공인과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가시적인 정치적 요구였으나 그에 그치지 않고 재폭구민과 척왜양창의의 정치적 실현을 더욱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삼례취회가 갖는 의의는 애민사상과 주체의식 고취에 진일보하였다는 뜻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삼례취회는 대중집회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일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성공적 경험 및 동학교단과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본보기로서 동학과 농민대중의 연결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성과는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기반으로 자리잡게 작용, 정착하였다.<sup>59)</sup>

#### 4) 서울의 伏閣上疏

평화시위의 상징인 공주취회와 삼례집회를 통해 신원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방수령들의 탐학, 수탈을 금지, 경각케 하는 예비적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 동학교단과 교도들은 소속된 교도들을 더욱 조직화, 체계화하여 이제 조선조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신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 결의하였다. 그것은 충청, 전라감사가 동학의 신원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회피성 답변을 보내 왔기 때문이다. 순수한 종교단체였던 동학이 혁명적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은 외국선교사도 지적하였듯이 정부관료의 탄압 착취 위협 등 학정때문이었다.<sup>60)</sup>

하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복합상소의 계획은 삼례취회 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sup>61)</sup> 즉 동학교단은 삼례집회를 최종 정리하는 1892년 11월 19일자 경통에서 “임금님께 복합할 구체적 계획은 방금 상의해서 다시 도모하려 하니 다음 조치를 기다리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서도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해월 등 동학교단 지도세력은 1892년 12월 6일 복합상소에 대비한 도소를 충청도 보은 장내리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도소를 설치하자마자 각지로부터 오는 교도들의 수가 답지, 폭주하여 사무처리가 밀려들었다.<sup>62)</sup> 이에 복합상소 계획 실행이 밀려드는 민중들로 혼란해지자 교단 지도세력은 12월 6일자로 도소출입을 제한하는 경통을 보냈다. 그러나 복합상소에 대한 지도세력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해월의 허락도 얻어 내지 못한 상황이라 복합상소의 실천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복합상소의 성과가 미지수일뿐 아니라 이후 정부의 탄압이 예상되어 고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59) 題音, 甘結, 敬通 참조

60) 유영렬 외,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문화사, 2004, 48-60쪽

61) 粧위 5)과 同 앞의 책, 82쪽

62) 『천도교회월보』 28, 24쪽; 『천도교사』 46-47쪽



이에 해월 등 동학교단 지도세력은 12월 중순 서울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정부에 소장을 올렸다. 내용의 요지는 “道단 사람으로서 다같이 행할 바를 이룬 것이니 狎가 있고 바름이 있으며 같음이 있고 다름이 있는 것은 모두가 사리를 바르게 구한 것이니 헛된 판단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sup>63)</sup> 동학이 결코 이단이 아님을 역설하고 충청, 전라지역에서 탐관오리들의 수탈, 탐학을 열거하면서 중앙정부의 공평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자 동학 지도세력은 상경하여 본격적인 복합 상소를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1893년 1월초 청주 송산리에 있는 손천민의 집에 奉疏都所가 설치되었고,<sup>64)</sup> 강시원, 손천민, 손병희, 김연국, 서병학 등이 그 실행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복합상소 계획을 각 지역에 알린 후 2월 초순경 먼저 서병학을 상경하도록 독려하여 도소를 정하는 문제와 속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 서인주, 서병학이 무장전복투쟁을 계획하여 이를 만류 견제한 바 있었다. 따라서 양 서씨를 뺀 10여명의 교단 지도세력은 2월 8일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의 차림으로 위장하여 일제히 상경한 다음 궁궐앞에 자리를 잡고 2월 12일부터 복합상소를 시작하였다.

이때 참가자 40여명 중 박광호를 疏首에, 疏文에 손천민, 書寫에 남홍원을 뽑고 결전에 대비하였다. 복합상소 참여자는 2월 13일까지 3일 3야동안 서울에서 청한 상소문을 붉은 보자기에 싸서 상을 받들고 광화문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통곡, 애원 호소하였다.<sup>65)</sup> 그들은 「최제우께서 유불도의 삼교와 성경신 三端으로 하늘과 땅을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단 狎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지의 疏文을 바친 것이다.<sup>66)</sup> 이에 중앙정부는 상소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그들의 처절한 哀號를 외면하고 상소문 접수조차 거부하다가 2월 14일 복합상소 참여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안주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다 해주겠다”라는 냉정한 내용의 전교를 내렸다. 이는 곧 해산명령과도 같은 일방통고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허탈해진 수천명의 동학교도들은 짐을 챙겨 귀향하게 되었는데 이때 해월은 교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유하면서 수도에 힘쓰라고 당부하였다.

팔역이 동정하여 만인이 한가지로 때를 맞추어 거의 하였으니 이 또한 천심이며 吽(대궐문앞을 지키다 싶이 떠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울부짖는 일) 3일에 各安其業의 喻가 있었으니 이 또한 천행이라<sup>67)</sup>

그러나 왕의 전교는 空約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도

64) 『동학사상자료집』 卷 448쪽

65) 앞의 『동학사』 제2장 6. 신원운동

66) 『천도교사』 프린트本

67) 『천도교창건사』 제2편, 53-54쪽

인들은 안돈할 희망이 없었는데, 오히려 소두 박광호를 잡아들이라는 국왕의 지엄한 명령으로 더욱 극심한 탄압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동학교도의 상경을 막지 못한 전라감사이경직과 한성부윤 신정희의 직을 파면하였다.<sup>68)</sup>

따라서 사기가 드높아진 동학교도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력투쟁으로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표면화하는 보은집회로의 정치적 시위운동단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 광화문 복합상소 직후 경향에서는 척왜양창의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서울주재 외국 공관과 교회당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과서가 곳곳에 붙었으며, 지방관아에도 외국인을 배척하는 방문이 여기저기 붙었다.<sup>69)</sup> 더욱이 복합상소 이전부터 서울에서는 운집한 동학교도들이 외국인을 몰아내기 위해 즉각 수만명이 상경한다는 불확실한 소문이 퍼져 있던 터라 서울안의 외국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sup>70)</sup>

이러한 동학교도의 잇단 복합상소와 과서진정은 당시 적지 않은 비상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즉 성균관 유생들의 동학토착의 상소로 나타났다. 그들은 동학이 서학이나 다름없음으로 이를 철저히 금압,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료들은 동학교도들이 패륜적인 죄술 괴귀의 무리라고 통렬히 규탄하고 나섰다. 외국 선교사의 대부분은 수운이 천주교도로 오인되어 참수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동학은 곧 서학시하였던 것이 이때의 정서요 분위기였다.<sup>71)</sup> 또한 서울의 외국공관에서는 본국과 연락을 취하여 민약의 경우 자국민의 파난을 대비하는가 하면 조선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영사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사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노약한 부녀자들을 먼저 인천으로 즉시 철수할 수 있도록 긴밀히 준비할 것을 각지의 일본인 거류민에게 긴급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sup>72)</sup>

동학교단의 지도세력은 이처럼 복합상소에 의한 왕의 호소에 대해 직접 상소마저 실패하게 되자 그들은 교조신원운동이라는 온건한 종교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성격을 띤 반폭력적 정치적 민중운동으로 전환하여 갔다. 그것은 상소 등의 온건한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대중 시위운동으로 강렬하게 전개되는 것이었다. 이에 동학교단 지도세력은 그해 4월 통문을 띄워서 전국의 동학교도들을 보은 장내로 집결토록 긴급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 5) 報恩集會

68) 『일성록』, 고종 30년 2월 26일조

69) 김의환, 「1892,3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5, 1970, 160-164쪽

70) 『구한국의교문서』10, 美案, 고종 30년 2월 18일-22일

71) 『The Korean Repository』, 1895년 2월호에 실린 전킨(W.M.Junckin)의 논설

72) 『일본외교문서』8, 고종30년 3월 5일-7일

1893년 3월 11일 보은 장내리에서 주문을 의우고 시작된 보다 대규모의 집회를 계획한 비폭력운동의 주창자 법헌 해월주재의 보은집회는 거의 같은 시기 금구집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투쟁의 전단계를 밝히는 중요한 역사적 발전단계라 하겠다. 이는 서울의 복합상소운동보다 앞서 12월(1892) 초에 도소를 이곳 보은에 정하고 현도의 입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해월이 3월 10일 수운의 辰辰式을 김연국의 가택에서 봉행한 직후였다.<sup>73)</sup> 보은집회는 동학교단의 조직적 역량을 확대시켜 준 집회였으며, 척왜양의 기치를 전면적으로 주장한 그러나 질서정연한 평화적인 집회였다. 또한 집회의 목적이 척왜양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와 세도가, 악질 유림배 등을 처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와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이라고 평가하기까지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동학란기록』이란 자료에 보은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2만명의 각계 각층 의욕이 충만한 특징적 유형의 전국적 교도들이 참가하였다고 했다.<sup>74)</sup> 그러한 사실은 조정에서 파견된 선무사 어윤중이 올린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는 부적, 주술로서 무리를 현혹하고 참위를 전하여 세상을 기만하였는데 필경에는 재기를 갖추고도 뜻을 얻지 못한 자, 貪墨이 횡행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민중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자, 外夷가 우리의 利源을 빼앗는 것을 분통하게 여겨 큰소리 하는 자, 貪土 墨吏의 침학을 당해도 호소할 바 없는 자, 경향에서의 武斷과 협박 때문에 스스로를 잘 보전할 수 없는 자, 京外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자, 營邑屬들의 부랑무뢰배, 영세농상민, 풍문만을 듣고 뛰어든 자, 부채의 참독을 견디지 못한 자, 常賤民으로 뛰어나 보려는 자가 여기에 들어왔다.<sup>75)</sup>

라고 하여 당시 지배세력과 사회질서에 불만을 가진 다양한 민중계층 등이 모였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이렇게 하여 3월말 경까지 모여든 인원은 줄잡아도 대략 2만명 내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sup>77)</sup>

손병희, 이관영 등의 건의에 따라 소집된 보은집회에 참여한 다수의 동학교도들과 민중들은 산아래 평지에 백여보 규모의 커다란 성을 쌓고 대오를 정비하며 척왜양창의라고 쓴 큰 깃발을 내거는 한편 방문과 통문을 냈다.<sup>78)</sup>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나는 통유문속

73) 오지영, 앞의 『동학사』 제2장 8 보은집회

74) 旗와 座次를 정하여 한번 보아도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있었으니 3만명, 5만명(『討匪大略』), 혹 7만명이라고도 하는 주장이 있다. 대규모의 전국적인 교도의 집회임에는 틀림없다.(『동학란기록』상, 120-129쪽)

75) 『동학란기록』상, 122쪽

76) 이현희, 『동학혁명과 민중』, 대광서림, 1985, 39-42, 55-56, 70-80쪽

77) 표영삼, 「보은 장내리 척왜양창의」, 『신인간』 505, 1992.5, 33-36쪽

78) 『동학란기록』상, 『聚語』, 작은 깃발에는 「忠義」 등 2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에 국왕의 仁治가 결여되고 있음을 지적,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모인 각 포의 구별은 충의대접주 손병희 등 19명이었다.<sup>79)</sup> 이후 날이 갈수록 참여인원이 더욱 늘어나자 3월 16일 보은군수 이증익은 해산령을 내렸다.<sup>80)</sup> 그러나 열반은 교도들은 “우리가 창의함은 오직 척왜양에 있으니 그칠 수 없으며, 또 동학은 처음부터 邪術이 아니며 혹 사술이라 하더라도 국왕이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는 지경에서는 충의하나 뿐이니 각처 유생이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맹세하고 忠義에 진력하고자 한다”라며 해산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였다.<sup>81)</sup> 그리고 이어 “왜양지사를 치는 것으로 죄삼아 기둔다면 和를 주장하는 매국지를 상준단 말인가. 어찌 우리 순상의 밝음으로서 헤아리지 못함이 이처럼 삼하단 말인가. 혹 미혹하여 왜양의 신복이 되려는 자는 관령을 따르라”는 방문을 내걸어 척왜양의 강한 배외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처럼 보은집회의 참여자들이 척왜양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그것이 주요 목적이기도 하였지만 척왜양의 구호는 당시 조선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봉건지배세력에 의해 용납될 수 있었던 위정척사사상과 부합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은 3월 22일에 있었던 보은군수의 해산령도 거절하고 “지금 생명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은 방백수령의 탐학무도함과 세호가의 무단에 있으니 만약 지금 소청하지 못하면 어느 때에 국태민안이 올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하면서 앞의 자료에서 지방 수령들의 대륙 탐학을 강하게 질정 비판하였다. 이때 해주출신 10대의 얘기접주 백범 김구도 이곳에 와서 해월을 만나 감동한 나머지 동학농민혁명에 동참키로 하고 인간평등과 자유 정의 진리 자비를 여러 가지 행사나 의식을 통해 절실하게 터득하였다.<sup>82)</sup>

이후 갈수록 세력이 확대되는 보은집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중앙 정부에서는 3월 25일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시키고 집회를 해산시킬 선무사로 보은 출신인 어윤중을 보냈다. 그리고 충청병사 洪在羲에게 군사 3백명을 이끌고 진압차 보은 장내리로 가게 명하였다. 보은에 도착한 어윤중은 장내리로 가서 강압적인 자세로 접주들을 감언이설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왕의 칙유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보은집회 지도세력은 중앙의 엄명이라 생각한 뒤 해산을 약속하고 우선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돌려 보내기 시작함으로 집회는 이합집산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더구나 4월 1일 어윤중이 보은군수를 대동하고 찾아와 강은 양면으로 퇴산을 명하자 마침내 3일안에 해산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해월과 손천민, 서병학 등은 교도들을 남겨둔 채 4월 2일 밤을 틈타 피신하고 말았다. 결국

79) 앞의 『동학사』 제2장 8. 보은집회

80)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2, 39쪽

81) 앞의 자료와 동일, 35-37쪽

82) 김구, 『백범일지』, 나남, 2002, 42-45쪽

3차에 걸친 효유와 그 회신이 오고 간 뒤 보은장내의 취회는 일단락된 것이다. 이처럼 보은집회 지도세력이 무력투쟁을 회피한 결과 신원을 겸한 정치적 보은집회 또한 성과없이 4월 3일부터 무력하게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보은집회는 동학의 종교적 신원운동 차원을 정치적 반봉건 반부패 척결투쟁으로 한단계 승화,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즉, 반봉건, 반부패, 반학정의 가치를 높이든 것이다. 동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교훈을 전해 준 것은 해월의 한울림사상과<sup>83)</sup> 비폭력주의였다고 평가한다.<sup>84)</sup>

## 6) 金溝集會

보은집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전라도 금구현 院坪에서도 대규모의 취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금구집회이다.<sup>85)</sup> 원평은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에서 서남쪽으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지로서, 큰 장이 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많은 산물이 활발히 이곳에 集中到來, 교류, 거래되었으며, 사람의 왕래가 잦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인문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관아가 있는 금구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악산과 금산사로 상징되는 이 합집산의 지리적 조건은 종교적 집회장소로 선택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원평 일대는 예전부터 새 삶을 모색하기 위한 신앙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고, 당시에 이 곳은 민간신앙의 근거지로 삶에 지쳐 있던 민중들의 위안,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또한 원평에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건은 이곳이 보은으로 가는 교통이 편리한 전라도지역 동학교인들의 중간 통로지점이었던 사실에 있다. 즉 정읍, 고창, 영광, 나주, 함평, 무안, 순천 등지에서 올라오는 동학교도들은 이곳을 지나야 하는 주요 집합, 활동, 연락, 교류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금구는 동학 대접주 김덕명의 본거지로, 이곳에서 어느정도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김명덕이 집회개최에 있어 주요 연락의 임무를 유리하게 수행하였을 것으로 본다.

금구집회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보은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1893년 3월 21일 전후부터 4

83) 이현희, 「동학사상의 배경과 의식의 성장」, 『한국사상』18, 1981

84) 이광순, 「최해월과 비폭력운동」, 『한국사상』12집

85) 『일성록』고종 30년 3월 21일

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참여인원은 1만명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6)</sup> 신임 전라감사 김문현이 전주감영에 도착하였을 때 군사마 최영년으로부터 금구에 운집한 東徒(동학도)가 거의 만여명이나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sup>87)</sup> 그리고 금구집회를 주도한 인물은 전봉준(철로, 병호)접주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계의 견해이다. 금구집회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으며 동학농민혁명 1년전의 일이었다. 보은집회 해산이후 서병학, 김봉집, 서장옥을 해당도의 감사로 하여금 체포 구금하라는 체포령이 의정부로부터 발령되었는데, 이때 김봉집은 전봉준의 가명(異名)으로, 당시 전봉준은 김봉균 등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sup>88)</sup> 또한 금구집회는 보은집회에 일부 동학도가 직접 참여하여 급진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자유, 진리, 정의감을 가지고 있던 고창태생의 전봉준도 주도적 참여를 시도하였기에 이 집회와 관련이 깊었던 것이다. 그는 원평일대에서 보은집회 세력과 기맥을 통하면서 보은집회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금구집회가 보은집회에서 벌인 행동은 서병학이 선무사 어윤중에게 보낸 밀보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병학은 보은집회의 해산을 종용하는 어윤중에게 “호남취당(금구집회)은 얼핏보면 우리와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 통문을 돌리고 방문을 게시한 것은 모두 그들의 소행이다. 그들의 정형은 극히 수상하니 원컨대 공께서는 자세히 살피고 조사 판단하여 그들과 우리를 혼동하지 말고 분명히 옥석을 구별해 주시오”라고 강조하였다.<sup>89)</sup> 다시 표현하면 금구집회는 최수운의 교조신원을 위해 계획 실행된 종교적 성격의 보은집회를 척왜양창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적 집회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구집회는 보은집회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열렸으며 척왜양과 지방관의 탐학·횡포·착취금지 등 강한 정치 사회 개혁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봉준이 동학지도세력과는 별개로 세력을 갖추고 금구집회를 계기로 성장한 후 동학농민혁명투쟁을 막전막후에서 주도하게 되었다.

전봉준이 金鳳均이라는 가명으로 주도한 금구집회는 이미 1893년 2월 중순에서 2월말경 사이 서울에서 척왜양을 절규하는 계시운동을 전개하였고, 3월초까지는 전주에서 유사한 운동을 벌였으며, 3월 7일에는 서울에서 외국선교사, 상인의 축출과 지방관리의 압제와 탐학 제거를 위한 정치적 공세를 벌이자고 선동하는 등 강도 높은 척왜양 반압제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큰 세력으로 결집되어 3월초에는 내부적인 기강과 규율을 갖춘 집단으로 조직화되었고, 금구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가질 수 있을만큼 적어도 4월 5일까지는 강력한 세력으로 응집되었다고 본다.<sup>90)</sup> 이처럼 전봉준을 주축으로 한 금구집

86) 「東徒問辨」 『동학단기록』상, 155-156쪽

87) 『동학단기록』상, 155쪽

88) 오자영, 『동학사』, 120-122쪽

89)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2, 69-70쪽

90) 정창별,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50-51, 82쪽

회는 이후 동학지도부의 노선과는 달리하면서 투쟁의식을 강화해 동학농민혁명투쟁의 주도세력으로 부각,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을 접주나 동학도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sup>91)</sup>

이상과 같이 동학교단에 의해 전개되었던 교조신원운동이 공주집회, 삼례집회, 서울 광화문 복합상소에 이어 보은집회, 금구집회로 연결되면서 신원현도에 이어 반봉건, 척왜양창의의 기치를 내건 강력한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투쟁의 이념적, 조직적 배경과 그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 4. 全鐵爐의 胎生과 農民革命準備

### 1) 출생지 문제

동도대장, 녹두장군 全鐵爐(봉준, 병호, 녹두)의 출생지가 어디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 설이 나와 있다.<sup>92)</sup> 나는 이미 최근 동학관계 학술논문에서 전봉준의 출생지를 옛 고창현 덕정면 죽림리 당촌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93)</sup> 그러니까 나는 고창 태생설로 좁힌 것이다. 천안 전씨 족보명(임술보) 전철로(1855-1895)의 최측근인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오지영의 주장(『동학사』, 1940)에 일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94)</sup> 이를 이제 몇가지 전씨 가문의 귀중한 족보등을 통해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생설이 분분한 것은 그 가까운 先代의 묘가 고창뿐 아니라 정읍, 태인, 남원, 순창, 임실 등지에 당시 정서인 명당따라 지역을 떠나 모셨기에 각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묘소위치로만 그의 태생지를 확정할 수는 없다. 혁명가이며 유교사상가인 전철로(봉준)의 출생지가 정읍 이평면 장내리(고택: 사적 제293호)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비판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동빈 김상기의 주장에 따라 이후 노장충이 족보 등 관련자료의 명확, 극명한 검토없이 논저에서 강조했었다. 대표적인 학자 한우근, 김용덕, 김의환, 이광린, 김창수로부터 최근 회의

91) 신복룡, 『전봉준평전』, 지식산업사, 1996, 71쪽 등 여러 가지 서술을 통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그 의도가 미심쩍다.

92) 정읍설, 고창설, 전주설이 대표적인 3가지 태생설의 주장이나 두 번째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93) 이현희, 『동학혁명의 전개와 근대성』 『동학학보』3 동학학회, 2002, 13쪽. 이는 그의 출생이 정읍이 아니고 고창태생임을 밝힌 것이다. 오지영, 이광순, 진기홍, 송정수, 최현식, 이기화, 이이화, 박찬승 등은 자료에 의거, 고창 태생설을 강조하여 그런 방향으로 학설이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저서 『인물한국사』(청아출판사, 초판 1986, 8판, 2003) 362쪽에서는 그의 출생을 정주군(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부락이라 했었다. 이를 이젠 수정한다.

94)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73, 161쪽(제2장 30. 동도대장 전봉준 등이 경성에 압송) 이곳 당촌에는 천안전씨가 20여호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취인 견해의 신복룡과 우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독자적이거나 동빈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4년 상기 전철로의 정읍 고택이 해체될 때 나온 상량문에 무인년(1818, 1878)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고택이 그의 생가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1878년이라면 그의 나이 24세 때이며 1818년이라면 혹 출생지의 가능성이 있겠으나 「전봉준공초」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이곳(고부) 그 당시에 다 소실되었다고 답변하였기에 신빙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이 집안의 족보를 보면 천안전씨의 제12회 간행 임술보(1862)와 병술보(1886)를 비교 분석하고 신미보(1931)에 의거하면 족보상 전철로는 병호, 봉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후 사실로 보아 병호가 녹두장군 동학접주 전봉준과 틀림없는 동일인인 것이다. 천안전씨 족보는 최초 1470년에 출간된 이후 1989년까지 28회 편찬하였다는 족보 서문과 연구자의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제14회 을축보(1865)이후 병술보(1886)는 누락되고(우윤의 논문상 검토로 풀이하였으며) 제15회 계사보(1893) 이후만 일람표에 기록되어 있다.<sup>95)</sup>

그는 천안 전씨 文孝公(信, 호 柏軒)派 후손으로서 연산공(敏)의 증손 송암공(五常)소파에 속하는 파손이다. 몇사람이 지적한 三宰公派의 후손이 아니다. 그는 천안전씨 시조인 ?으로부터는 53세손, 문효공으로부터는 17세손, 송암공으로부터는 10세손이다. 신복룡은 최근 『전봉준평전』 61쪽에서 전철로를 섭으로부터 24세라고 하였다. 그러나 『丙戌世譜』에 그의 세대가 24세라고 기록한 것은 兵相公 宗道로부터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미보에 따르면 44세 五常이후-誠-彥國-厚徵-萬紀-相圭-道臣-碩豐-基禔(彰赫)-瑋準(53세)-東-(54세)로 이어지는 이 집안의 가계를 알 수 있다.

그는 유학의 기본교육에다가 동학사상으로 성장한 접주요, 개혁사상가이기도 하였다. 30여년 가까운 시기 사료 연구와 현지답사, 묘소확인, 증언 등으로 집요하게 전장군의 태생지를 밀착, 확인한 이기화 고창 문화원장의 연구결과는 현재 가장 신빙할만 하다.<sup>96)</sup> 임술보에 나타난 전봉준의 보명은 철로 즉 우리말로 쇠화로라 했는데, 고창군민은 그를 “씨화로”라고 부른다는 그의 주장이다. 신미보(1931)에는 炳鎬, 초명을 철로, 자는 明淑(1855년 12월 3일생)이다. 그의 나이 32세 때 간행한 병술보(1886)에는 아들 동일(1886년 生)과 숙부 基性(1830-60), 사촌간인 豆鎬(1861년 生)가 기록되어 있다.<sup>97)</sup> 그의 부친은 초명 基永(뒤에 基禔:1827-?), 자는 仁瑞, 조부는 碩豐(1790-1857)이다. 전장군의 배위는 전처 여산송씨(1851-77)와 후처 남평이씨(1860-?) 두 명이 기록되어 있다. 병술보에는 녹두 전봉준장군

95) 우윤, 「전봉준장군 출생지정립, 『정읍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발표논문, 2003, 10쪽

96) 이기화, 「전봉준의 태생설에 관한 구명, 『향토문화연구논문총서』, 1989, 48-88쪽

97) 『天安全氏 辛未譜』, 이기화, 『고창총의사』, 고창문화원, 2001, 301-305쪽



의 조부(석풍)묘가 고부군 남부면 鎭長門下 次福里에 있다고 했다. 전철로가 3세 때 조부가 작고했다는 사실을 볼 때 고창태생설을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25년 앞선 임술보(1862)에는 그의 조부의 묘가 분명 고창 죽림리 堂村 龍印登에 모셔져 있다고 명기하였으니 당초에는 조부의 묘가 고창에 있었으므로 전장군의 출생이 고창설에 더 신빙성이 있고 사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연구자의 일부는 그동안 사료의 검토 비판없이 발굴된 족보 중 병술보만 믿고 그의 출생을 고부라고 굳혀 온 것이다. 그는 13세때 고창에서 떠나 태인군 산내면 동곡리 知琴谷(지금실)로 이사하였다. 한때는 그가 완주군 구이면으로 이사했던 일이 있었는데 명당을 신앙시하였던 당시 가문적 정서로 보아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출생이 한때 전주로(장봉선의 주장) 강조되었던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였다.<sup>98)</sup>

동학농민혁명 당시는 그가 정읍군 이평면 조소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분명 대규모의 난을 어디서 일으켰느냐고 했을 때 고창 무장면 冬音時 당피(堂山)에서(현, 공음면 九水里) 거사했다고 대답했으니 고창 무장에서 처음 대대적인 전쟁규모의 혁명의 횃불을 든 것이다.<sup>99)</sup> 이곳은 그가 태어난 현재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번지에서 50여리 거리에 위치한다. 이곳 무장에서 손화중, 김개남과 고부민란 이후 공동명의로 倡義文을 발표하고 1894년 3월 21일 제1차 대규모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sup>100)</sup> 최근 나에게 보내준 전북대학교수 송정수의 몇편 정밀 분석된 주목할 논문에서도 그의 태생을 고창 당촌설로 굳히고 있다. 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sup>101)</sup> 우정사가로 고창출신인 진기홍이 내게 보내준 정보첩보문서인 『隨錄』에서도 그는 이와 비슷하게 고창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 투쟁을 전개했다고 술화하였다.<sup>102)</sup>

## 2)전철로의 농민혁명준비

자료나 증언상 전철로는 분명 고창 출생이다. 그러므로 義鄉인 고창의 기본정서인 오륜오상에 철두철미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창의문에도 나타난다. 불의, 부정, 비리, 모순, 폭력에 항거하는 자유 정의 진리 양심이 살아 있었기에 그는 구체제·폭력·부패를 꺾고 새틀

98) 張奉善, 『全瑋傳實記』, 정읍군지소재, 이르게, 1986, 381쪽

99) 『全瑋傳供招』, 진기홍의 논문을 통한 주장도 매우 신빙성이 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100) 上同

101) 송정수, 「전봉준장군 가계에 대한 검토」, 『호남사회연구』제2집, 1995, 247-263쪽; 「전봉준장군 출생지에 대한 고찰」,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1998, 21-36쪽;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12, 2000, 127-151쪽

102) 고창문화원, 『전라도고창지역동학농민혁명사료집』, 1998, 119·21·62·166·180·341쪽

을 짜기 위해 사회혁명의 봉화를 든 것이다. 전봉준의 조상인 천안전씨 중 고려인 후손은 무장현의 아전으로 재직했었는데, 최근 그곳을 찾아 본 결과 무장 현감 鄭權의 영세불망비를 세울 때 현감의 행동을 뼈뚫하게 여기고 비석의 앞머리를 좌로 돌려 놓은 것 등은 비리 부정의 현감을 조롱한 처사로 정의감이 여기서 깊이 싹튼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고창은 산과 강, 비옥한 넓은 평야로 미곡 등 소출이 많아 풍요로움이 넘친 복된 고장이었다. 더욱 칠산 어장을 갖고 있어 농어수산물도 풍부했으므로 과거 급제한 관리가 실직으로 나갈 때 이곳을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잦았었던 사례로도 증명이 된다. 그중 茂長은 아전들 자긍심의 고장으로 이름나 그곳에 부임했던 역대 수령들이 긴장하였던 곳이기도 하였다.<sup>104)</sup>

고창 무장에는 천안전씨 文孝公(全信)派의 손자 德隣(우왕 10년)이 茂長, 井洞에 낙향, 20대를 세거하며 번영하여 공음면 新垔, 九井 등에 100여 세대가 분산 거주, 번영하고 있었다. 천안전씨가 많이 살았던 고창 당촌에서 나서 13세대까지 그곳에 살다가 정음으로 떠난 전철로도 그 선대와 이 고창의 전통 기질에 따라 깨끗하고 바른 참선비로 성장하였다. 손화중 대접주, 김개남 접주와 의기투합, 연계되면서 당촌에서 그 부친이 경영하던 서당의 친구들과 어울려 부정부패한 사회개혁을 앞당길 동지를 규합하였다. 그는 이미 1893년 3월 전후 시작된 金溝집회를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한 바도 있다.

당시 고부는 군내 으뜸가는 곡창지대였기에 지배층의 수탈이 극심하였다. 대일수출항인 줄포가 이웃하고 있어 지주제가 강화되고 농민의 몰락이 극심해진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전라도에서 대규모의 민란이 27회나 속발하였던 것이 그 지역적 특성을 이해케 한다. 1892년 5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양주조씨 문중의 조병갑은 가림주구가 심해 익산군수로 좌천되었다가 세력을 배경으로 1894년 1월 9일 다시 노른자위 고부군수로 오게 되어 그가 혹한 수탈행위가 극심해졌다. 전봉준장군은 이미 동지와 같이 1893년 11월 고부 군청을 찾아 비리 모순 부정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철저히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선대로부터 이어온 전통인 정의 진리에 따라 그는 사발통문을 만들어 의로운 봉기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가림주구는 끊이지 않았다. 즉 만석보 재축 등 10여 가지의 부당한 각종세의 강징요구에<sup>105)</sup>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는 전철로의 아버지(전기영, 기창, 창혁)를 장살하기까지 했다.<sup>106)</sup> 전장군은 1894년 1월 10일 자신과 金道三, 鄭益瑞 등 3장두를 중심으로 그가 거주하던 현 이평면 소재 말목장터에 불만으로 가득찬 민중을 집결시켜 설득하고 고부관아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소규모의 민란규모일 뿐이었다. 동 3월 21일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본격적

103 최근영, 「鄭權은 왕따였을까」, 『대한문화재신문』 12, 2004.5.15

104 이기화, 「동학농민혁명과 고창과의 관계」, 제16회 발표 『향토사료』, 2002, 고창문화원

105 『전봉준공초』

106 오지영, 『동학사』, 제2장 13. 전라 각 군의 민란

인 전쟁형태로 전봉준장군이 창의문을<sup>107)</sup> 높이 들며 4천명을 이끌고<sup>108)</sup> 농기구까지 동원한 채 무장한 뒤 고창 茂長에서 처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sup>109)</sup>

그리하여 고부를 공격한 뒤 태인 원평 금구로 진격하였다. 이때 전라 감영군 1만여명이 급거 출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고부로 퇴각하였다. 그 뒤 동학농민혁명군은 금구에서 부안을 거쳐 고부로 되돌아 갔다가 24시간 동안 전라 감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다. 이들은 정읍 황토현전투에서 승리의 기세를 올리고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으로 진출하여 長城에서 7백명 규모의 京軍을 맞아 격퇴하고 북상하여 4월 26, 27일 전주성에 무혈입성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10)</sup> 그 뒤 5월 5,6일경 해산하였다고 그는 공초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전봉준장군은 정현백이 기초하고 자신이 수정하였다는 창의문에서 표명하였듯이 “오늘의 신하된 자들은 봉록과 지위만 탐하고 아부와 교언영색으로 공직수행을 일삼았으며, 충간하는 자를 비도(匪徒)라고 몰아 세우니 어찌 나라 형세가 이렇게 혼란 무질서 불법의 행악속에 자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라며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sup>111)</sup> 더욱 四維(예의염치)가 바로 서지 못하여 인간의 오륜 오상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 윤리가 쇠잔했다는 것이다. 매관 매직이 극심한데다가 세금이 국고에 가지 않고 오히려 세도가의 사복만 채우고 있으며<sup>112)</sup> 국채가 쌓이는데 갚기보다는 교만, 사치, 음풍만 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고한 만민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을 들어 이의 反轉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당위성·명분성을 찾고 있다. 그의 명언 중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이를 고치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전장군)은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쫓겨가고자 한다는 것을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배경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113)</sup>

## 5. 결론

19세기말 조선왕조는 대내적으로 봉건지배세력의 가혹한 수탈이 노골적으로 자행됨으로

107) 京都大 河合文庫에서 찾아낸 官邊기록인 복사본 『隨錄』에 나오는 유명한 전철로(봉준의 倡義文 말마에는 전봉준 등 3명의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반드시 윤색 가필 여부를 규명해야 할 중대 자료상의 진위여부의 사안인 것이다.

108) 『全瑋準判備宣告書原本』

109) 『전봉준공초』

110) 『전봉준공초』

111) 『倡義文』

112) 黃玿 『海峯野錄』 제3권, 국사편찬위원회, 1959.

113) 『전봉준공초』 『창의문』 참조

민심은 극도로 위축, 피폐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 개항전후 서세동점에 의한 제국주의의 경제침투 등 위기 의식이 고조, 팽만, 미혹되어 있었다. 이에 1860년 4월 고행 끝에 수운 최제우에 의해 인간성의 회복, 반봉건과 반외세사상이 내포된 동학이 득도되었다. 동학은 종교, 사상적으로 진공상태에 빠진 당시 농어민대중에게 급속히 확산되어 지배층의 탄압, 부패와 외세의 사회경제적 침략에 따른 위기에 몰린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참신한 메시아적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는 곧 민중들에게 시대적 고통의 근원적 원인을 깨닫게 하고 향촌사회의 변혁에 따른 저항의식과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근대적 민족의식을 터득, 성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사상은 기존 봉건사회 질서와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원리와 요소로 인식됨으로 결국 제1세 교조 수운은 흑세무민의 죄목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다. 동학 최초의 순도인 것이다.

이후 동학의 교세는 잠시나마 위축되었으나 그의 제자인 해월 최시형(1827-1898)에 의해 1870년 후반에 이르러는 교단의 지도체제가 확립되었고, 동학의 기본정경이 간행되었으며, 동학의 주요 종교의식과 제도가 확립됨으로 소외되던 민중이 관심과 동참을 가져 그 교세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증가하는 동학의 교세는 당시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봉건 수구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됨으로서, 각 지방의 수령들은 지속적으로 동학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880년대 이후 동학교단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탄압은 소위 𪚩學을 금지한다는 명분아래 동학교도들의 재산을 수탈하거나 죄목을 씌어 잡아 가두는 등의 탄압형태로 나타났으며, 동학교도들은 탄압을 피해 도망과 피신, 잠적을 하거나 석방금을 내고 풀려나는 등 굳건히 동학교단을 지켜 나갔다.

그러다가 1890년 초에 들어서면서 동학교단은 수운의 교조신원운동이라는 합법적인 청원, 공인운동을 전개하여 동학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러한 교조신원운동은 동학 제1세 교조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려는 운동으로서 아울러 동학의 공인과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동학교단은 伸訴제도를 통해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집단적 시위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871년 영해에서 이필제의 난을 비롯하여 1890년대 초 공주취회가 전개되었으며, 공주취회를 통해 지방관리들의 수탈을 금하겠다는 충청감사의 甘結을 얻어낸 동학 교단은 다시 척왜양창의의 실현을 강조한 삼례취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이 공주취회와 삼례집회를 통해 신원운동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방수령들의 탐학을 금지케 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에 동학교단과 교도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신원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복합상소에 의한 왕의 호소에 대한 직접 상소마저 실패하게 되자 그들은 교조신

원운동이라는 온건한 종교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과감히 정치적 성격을 띤 집단적 민주운동으로 전환하여 갔다. 그것은 일종의 위압감을 불어넣는 대중 시위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었다. 이에 해월 중심의 교도들은 보은집회를 개최하였고, 이 시기 전라도 금구현 원평에서도 금구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때 금구집회는 수운의 신원을 위해 계획 실행된 종교적 성격의 보은집회를 척왜양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적 집회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고창태생으로 茂長에서 대규모의 봉기를 실현시킨 민주혁명이가 녹두 전봉준을 주축으로 한 금구집회는 이후 동학지도부의 노선과 달리하면서 투쟁의식을 강화해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다시말해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은 각 큰 집회를 통해 반봉건, 척왜양창의의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정치적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이후 민족의 근대적 사회개혁을 실현코자 한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족보명 전철로인 동학접주 전봉준(병호·명숙·泳準·녹두)은 유교의 교양과 수운의 동학사상을 익힌 선비로 10대 때 정읍, 전주, 태인 등지로 몇 번 이거하였다가 30대 후반 고부민란 때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 자유 정의 진리의 반봉건·반외세·반부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는 소규모의 민란 형태였으나 고부군수의 탐학과 관리의 전형적 수탈에 경종을 울렸던 집단적 항거였다. 그러나 두 번이나 같은 자리에 부임한 고부군수의 탐학이 중지되지 않자 같이 고향인근인 고창 무장에서 4천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대규모의 전쟁형태인 제1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후 두 번에 걸친 혁명투쟁은 계속되었던 것이니 그 거사의 중심인 근본사상은 정의를 앞세우고 인간의 오류오상, 四維 등을 살리는 유교의 인간성회복과 동학에서의 내것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그가 외세를 배척하려는 동학사상에서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이 비록 그의 부친(기창·기영·창혁)이 고부군수로부터 장살당하였다는 단순 복수의 행각이라고 생각되나 선비정신을 구비한 훈장 접주로서 현실개혁의 변혁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혁명적 투쟁이었음을 분석적으로 해석 평가해 볼 수 있겠다.

# 東學農民革命運動의 발상지와 茂長蜂起

황 선 희 교수

1. 東學의 인본주의 後天開闢思想
2.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
3. 茂長蜂起의 역사적 의의

## 1. 동학의 인본주의 후천개벽사상

한국 근대민족운동사에서 1894년에 있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은 목적론으로나 결과론으로 볼 때 국내외의 정치문제에 파급이 지대했던 사건이다. 피지배층인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정치세력화 하는데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에 있었다.

그리하여 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동학난’, ‘동학혁명’, ‘동학농민혁명’, ‘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명제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대부분 동학과 농민층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부각시키는 접근방법으로 주도세

력의 성분과 전개과정, 역사적 의의를 규명해온 경향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운동의 근대민족운동사적 위상과 성격 및 의의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능케한 정신적 원동력이 동학의 후천개벽사상과 인간관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와 무장봉기의 역사적 의미부여를 명확히 하려면 동학의 후천개벽사상이 추구한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사회저변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갔는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학의 인간관은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은 창도당시 제창했던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倉生)에서 알 수 있듯이 동귀일체(同歸一體)에 의한 지상천국 건설이었다. 동학의 정치사상은 2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으로서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정치기강과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 등 왕조사회의 말기적 현상을 자체적으로 희생하고자한 근대적 사회개혁사상이다. 다음은 민족자립의지로서 서세동점과 서학의 도전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민족주의 정치사상이다. 동학교계가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후천개벽에 의한 지상천국건설을 표방했던 것이나 척왜양(斥倭洋)의 입장에서 양이적(攘夷的) 배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도 이러한 민족주의 혁명사상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sup>1)</sup>

최제우가 후천개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시했던 것은 시천주(侍天主)에 의한 인간성 회복이었다. 인간개조를 궁극적 이상으로 한 그의 인간관은 인간의 본질적 평등성을 강조한 것으로 근대적 인본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시천주의 전제조건으로 수심정기(守心正氣)의 신앙행위를 요구한 도덕지상주의적 측면이 있었지만 정기(正氣)의 실천대상을 '한울님'(天)에서 인간개체, 민족, 국가, 인류사회로까지 확대적용 하였다. 또한 후천개벽의 방법론으로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영구진화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물리적 사회혁명보다 정신개벽에 의한 후천개벽을 강조하였다. 환언하면 그의 후천개벽사상이 아직은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최제우의 관념론적 후천개벽사상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최시형대에 이르러서였다.

최시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본주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세속화하였다. 인간의 시천주 상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인즉천(人卽天)의 입장에서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 내면화한 '한울님'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양천주(養天主) 설로 인간평등·인간존중 사상을 주창하였다.<sup>2)</sup> 이러한 그의 인권사상은 1865년 적서차별의

1)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pp.50-51

2)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 3, pp.98-99

… 諸君의 행위를 본즉 自尊하는 者 많으니 가탄할일이로다. 내 또한 세상사람이 어니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 는나마는 내 이를 하지 아니함은 한울을 養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니라 …

철폐를 주장한 설법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고<sup>3)</sup>, 도(道)의 근본이 부화부순(夫和婦順)에 있다고한<sup>4)</sup> 근대적 여성관과 부인이나 어린이의 말이라도 ‘한울남’의 말로 알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한 설법<sup>5)</sup>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그는 인본주의 인간관을 강조하여 최제우의 관념적인 인권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인간을 독립된 인격체로 평가함으로써 인간평등·인간존중사상으로 현실화하였다. 이러한 인본주의 후천개벽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울남’을 인간으로 대체해서 설법했던 ‘십무천(十毋天)’<sup>6)</sup>과 1894년 전주화약 당시 전봉준이 제시했던 ‘폐정개혁안 12개조’<sup>7)</sup>에서다. 십무천의 요지는 피지배층인 일반백성의 입장에서 인권론을 펼친 것이고, 폐정개혁안은 대정부 개혁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모두 사인여천의 인간관을 대중화한 것이라 하겠다.

최시형은 1864년 이후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30여년동안 71개 지역을 전전하면서 포교활동을 하는 중에 일반 민중과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1870년대의 설법은 대부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히 1875년 단양에서 있었던 그의 설법은 시운관(時運觀)에 입각한 용시용활론(用時用活論)인데<sup>8)</sup> 후천개벽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지은 것으로서 후천개벽의 현실화에 있어서 정국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운동의 기회 포착과 운동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조선의 사회상은 이필제의 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던 민란의 열기가 심각할 정도였다.

사회개혁 의지가 직접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후천개벽을 위한 사전준비가 진행된 시기는 1880년대에 들어서였다. 이 무렵 조선정국은 김홍집 탄핵을 위한 위정척사운동,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으로 인해서 동화에 대한 정부의 탄압정도가 약해져 있었다. 따라서 최시형 등 동학 지도층은 동학교단 조직의 재정비와 교리의 이론 정립에 집중할 수 있었다. 최시형의 종교의식 개혁은 이미 1875년에 추진되고 있었고<sup>9)</sup> 이어서 포접제를 실시

3) 위의 책, pp97

4) 위의 책, p.127

5) 위의 책, pp98-99

6) 『海月先生說法結解』, pp306-310.

① 毋欺天 ② 毋慢天 ③ 毋傷天 ④ 毋亂天 ⑤ 毋夭天 ⑥ 毋汚天 ⑦ 毋?天 ⑧ 毋墮天 ⑨ 毋厭天 ⑩ 毋屈天

7) 오지영, 「동학사」 『동학사상자료집』2, pp.482-483

폐정개혁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 동학인과 정부는 庶政에 협력 | 2. 탐관오리는 엄징      | 3. 횡포한 부호에 엄징 |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계 |
| 5. 노비문서 소각         | 6. 7반천인 대우 개선    | 7. 과부의 재가허용   | 8. 무명잡세 폐지        |
| 9. 인재등용            | 10. 왜와 관통하는 자 엄징 | 11. 공사체 혁파    | 12. 토지의 균등분작      |

8) 『천도교창건사』, p.115

9) 위의 책, p.114

제물을 청수(淸水) 한그릇으로 대체함으로써 객관적 사회여건에 따라 가난한 농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교화와 통문을 통하여 각지역 교단조직의 긴밀한 연락망을 확충하는 작업이 188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890년대는 동학의 반봉건적 후천개벽사상을 바탕으로한 개혁 지향의 사회운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다. 동학의 근대적 인본주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도 이 시기였다.

최시형은 1897년에 향아설위(向我說立)의 제사의식을 주장하는 한편 주문의 만사지(萬事知)를 재해석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인간존중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의 세속적 일상사를 시천주(侍天主)행위로 보고 향아설위의 제사의식을 시천주 행위중의 한가지 사례로 여겼다.<sup>10)</sup> 이러한 주장은 종래의 향벽설위(向壁說立)를 반대한 것으로서 전통사회의 관습과 사교의 일대혁신을 의도한 것이다. '한울남'과 인간의 시청언용(視聽言用)·굴신동정(屈伸動靜)자체가 귀신 곧 '한울남'이므로 신위는 자신의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울남'과 인간사이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으로서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봉건적 지배층의 신분적 특권을 거부한 것이 된다.

인권사상을 강조한 다른 사례는 '만사지'(萬事知)를 밥한그릇(食一碗)으로 해석한 것이다.<sup>11)</sup> 인간의 모든 일을 밥한그릇에서 진리를 깨닫고 인식하려한 것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치를 인간의 일상사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밥한그릇은 모든 경제적 욕구를 상징한 것으로 양천주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본 것이다. 최제우가 주장했던 수심정기가 관념적이었다면 밥한그릇의 진리는 자극히 현실적인 인본주의 사상이다.<sup>12)</sup>

만사지의 해석이나 향아설위의 주장은 후천개벽의 추상적 표현을 빌린 것이지만 현실극복을 위한 일대 혁명적 발상이다. 요컨대 최시형의 사인여천사상은 도덕지상주의 종교성과 인본주의 사회사상을 아우르며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면서 근대적 인본주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동학사상의 이러한 근대적 성격이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를 거론한다면 단연 고부군을 들 수 있다. 탐관오리의 가렴주구가 성행되었던 지역이 전라도 일대였고 특히 고부군이 극심했다. 19세기 후반 세도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3정문란은 농촌경제의 파폐상을 최고도에 이르게 하여 전국 곳곳

10) 위의 책, p.167

11) 『海月先生說法結解』, p.39

12) 황선희, 「동학사상의 인본주의 성격」, 『동학연구』3, 한국동학학회, p.140

에서 민란을 야기케 하였다. 민란의 경우 대부분은 읍폐교구(邑幣矯擧)를 호소하는 소청(所請)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지역적 연대나 시간적 지속성이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고부군에서 있었던 농민봉기는 동학 접주(接主)가 선봉이 되어 농민들이 일으킨 병란적 민란의 형태로 연결되었다. 봉기농민들 중에는 동학 교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대성을 갖는 것이 용이하여 뒤에 무장봉기(茂長蜂起)로 이어짐으로서 고부군은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무장봉기로 이어진 농민봉기가 고부(古阜)에서 시작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종래의 학설대로 정치기강 문란과 조병갑의 탐학때문만이었을까? 고부군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곡창지대로 알려진 천혜의 지리적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부군은 고부평야, 팔왕평야, 배들평야, 백산평야, 수금평야, 화호평야 등 비옥한 농토가 넓게 자리잡고 있어서 미곡생산이 풍부하였고 서해안의 해산물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sup>13)</sup> 따라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탐관오리들이 가렴주구를 위한 최적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또한 고부군 주변에 즐포, 염소, 동진, 사포의 4포구가 있어서 개항 이후 대일 쌀수출 관계로 지주제가 더욱 강화되어<sup>14)</sup> 고부농민에 대한 탐학이 상식선을 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 더하여 조선후기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던 정치기강의 문란 또한 겹쳤던 것이 고부농민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과거제의 폐단, 매관매직 관행과 3정 문란 등 관료들의 정치기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원군 집권시기의 사례를 들어보면 매관매직은 원납전 징수의 명분으로 성행되었는데 수령이 되려면 적어도 2만냥 정도를 바쳐야했고<sup>15)</sup> 과거의 급락도 사전에 뇌물을 바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났다<sup>16)</sup>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임한 지방수령들은 대부분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3정문란으로 인한 폐단은 고리대 행위로 전락해버린 환곡에서 가장 심하였고, 군포와 결세(結稅)의 중첩된 남징이 온갖 명목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대원군 하야후 민씨척족들이 집권하면서 더욱 극심해졌는데 고종실록에 기록된 민란만도 무려 46개소에서 47회 발생하였다. 1860년대에 4회, 1870년대에 3회, 1880년대에 18회, 1890년대에는 22회에 걸쳐 민란이 발발하였던 것이다.<sup>17)</sup> 이것은 철종조에 있었던 임술민란 형태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서 종래의 전형적 민란 형태라는 한계는 있었으나 1888년부터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1890년대에는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상황에까지 갔다.

13) 이기화, 「동학농민혁명과 고창과의 관계」 『향토사료』 제16회 발표, 2002, 고창문화원, p.5

14) 김창수, 「고부의 기포」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p.460

15) 한우근, 「19세기말 한국의 사회상황」 『한국사17』, 국사편찬위원회, p.29

16) 황현, 『매천야록』 권 I, pp.34-29

17)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 혜안, p.86

이 무렵 전라도 지역은 1892년부터 흉년이 3·4년간 지속되면서 지방수령의 가렴주구와 흉작이 겹쳐서 농민생활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빠졌다. 그 중에서도 고부읍은 암행어사 이면상(李冕相)이 5년동안 향후 면세조처할 것을 건의했을 정도로<sup>18)</sup> 농민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고부군 농민의 원한은 군수 조병갑이 부임해오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한 민란의 형태가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방수령 못지 않게 전운사와 균전사의 횡포가 극심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세곡운반 감독이 주임무였던 전운사 조필영의 가렴주구는 경창(京倉)에 전달했을 때 발생되는 부족미(不足米)를 양여미(量餘米)의 명분으로 남징하든가 운송비를 이중부과하고, 기선(汽船)구입비를 과세하거나 세목(稅目)을 새로 정하는 등 미곡수탈행위를 3년동안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 등이다.<sup>19)</sup> 또한 매관매직을 통해서 균전사로 부임했던 김창석도 진황전(陳荒田) 개간시 3년간 면세키로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새로 개간한 농지를 균전(均田) 전체에 포함해서 균전답도조(均田畝階租)라는 일종의 소작료를 부과하였다.<sup>20)</sup> 그뿐 아니라 상부에는 균전을 진결(陳結)로 보고하여 토지를 겸병하는 방법으로 치부하는 등 균전사의 가렴주구행위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창석이 농민수탈을 본격화 했던 시기는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부임한 이후부터였다.<sup>21)</sup>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은 수세(水稅)징수와 방곡령 남용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부읍 북쪽 동진강 상류의 만석보 아래에 다시 신보(新伏)를 구축할 때 면세조처하기로 했던 약속을 묵살하고 수세를 강징하였는데 이 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행한 수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석보에 신보를 쌓고 1두리당 上畝에서는 2斗, 下畝에서는 1斗씩을 부과 하여 700석을 착복.
2. 황무지(陳結) 개간시 면세하기로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結稅를 강징.
3. 농민에게 불효죄, 불목죄, 음행죄, 잡기죄의 죄목으로 2만냥을 수탈.
4. 泰仁 현감이었던 그 아버지의 비각건립을 목적으로 1000여냥을 징수.
5. 大同米 징수시 精白米 16斗를 금전으로 징수하고, 상납시에는 下等米로 하여 그 차액을 착복.<sup>22)</sup>

또한 그는 방곡령을 남발하여 농민수탈을 위한 합법적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과 농산물 교역시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방

18) 『고종실록』 고종 29년 7월 18일

19) 황현, 앞의 책, p.87

20) 『고종실록』 고종 29년 7월 18일

21) 『동학사』, 앞의 책, pp.458-459

22) 『전봉준공초』 『동학난기록』上, p.522

곡령 반포권한을 지방 수령들에게 부여했는데 조병갑이 이를 남용하였다.<sup>23)</sup> 흥년에도 방곡령을 발표하여 쌀을 대량으로 매점매석한 후 미가가 폭등하면 되팔거나, 고부읍 주변의 4개포구를 통하여 일본상인들에게 밀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전운사 조필영과 균전사 김창석의 가렴주구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러한 권력남용과 맞물려 1893년에 그 탐학정도가 절정에 이르렀고 이에 비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고부농민봉기 발발 직후 고종은 그 원인이 수령의 가렴주구에 있다고 하여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의지를 보였던 것이<sup>24)</sup> 이를 입증한다.

1894년 1월 10일에 봉기한 고부농민들은 처음에 조병갑의 탐학시정을 요구하는 등소(等訴)의 과정을 거치는 등 전형적인 민란의 형태로 시작하였다. 1893년 11월 고부군의 동학접주로 있던 전봉준과 농민들 40여명이 고부군아(郡衙)를 찾아 불법적 탐학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농민 대표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전봉준 등은 한때 사발통문(沙鉢通文)에 의한 무력적 거사계획을 하였는데<sup>26)</sup> 고부군아를 점령한 후 전주감영과 서울로 진격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고부군 동학접주들의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민들이 이 계획에 동조하였다는 기록에서 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이미 8월에 정부에서 전라도 병영을 설치하여 상경로(上京路)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있었으며<sup>28)</sup>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보됨에 따라 이 거사계획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조병갑이 탐학을 계속하자 12월에 전봉준과 고부농민 60여명은 전주 감영을 찾아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다시 민소를 제기하였다.<sup>29)</sup> 1893년 11월과 12월에 제기한 민소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안택사 이용태가 동학농민혁명운동 발발후 의정부에 올린 장계중 읍막7조(邑?七條)와 거의 흡사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그러나 전라감사 김문현은 오히려 조병갑의 유임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려 조병갑이 1894년 1월 9일 다시 고부군수로 재임되었다.

조병갑의 유임이 결정되자 고부군 접주 전봉준과 김도삼, 최경선 등은 즉시 봉기를 주도하여 11일 농민군을 말목장터(梨坪面)로 집결시켰다.<sup>31)</sup> 고부농민봉기가 이때부터 병란적 형

23) 김창수, 앞의 책, pp.459-460

24) 『日省錄』, 고종 31년 2월 20일

25) 『全韓華供招』, 『東學亂記錄』上, p.526

26) 김창수, 앞의 책, pp.461-462

27) 위의 책, p.462

28) 『日省錄』, 고종 30년 8월 14일

29) 『全韓華供招』, 앞의 책, p.526

30) 『日省錄』, 고종 31년 4월 24일

전운소에서 不足米, 流比結稅, 陳田에서의 賻租, 만석보수세, 八班狀수세를 남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었다.

31) 『동학사』, 앞의 책, p.446

태로 발전하였다. 고부군의 농민군이 진격한 과정을 보면 말목장터 집결(1월 11일) → 고부성 함락(1월 11일) → 말목장터에 재집결(1월 17일) → 백산으로 이동(1월 25일) → 고부 점령(2월 23일) → 해산(3월 13일)의 경로를 거쳤다. 고부성을 함락한 농민군은 강징당했던 수세를 군량(軍量)으로 돌리고, 진결(陳結)징세는 농민들에게 반환하는 한편 만석보 아래 있던 신보를 허물었다. 다시 말목장터로 이동했던 이들은 전략상 공수(攻守)에 유리한 백산(白山)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전봉준은 격문을 발표하여 봉기의 뜻을 선포하였다.<sup>32)</sup> 비로소 조선정부는 2월 15일 조병갑을 국문하고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하는 한편 전라감사 김문현에게는 월봉3등(越奉三等)으로 처벌조치하고<sup>33)</sup> 이용태를 고부군 안택사로 임명하였다. 고부군수 박원명이 부임 즉시 봉기군이 본업으로 돌아가면 봉기사실을 용서한다는 효유문을 발표함에 따라 40여일간 지속된 고부농민봉기는 2월 말경 일단 진정되었다.<sup>34)</sup>

그러나 고부농민봉기가 진정될 무렵 안택사 이용태가 박원명을 협박하여 봉기주도자를 색출하고 일반 양민들에게 동학군으로 누명을 씌워서 탄압하였다.<sup>35)</sup> 이용태는 고부에서만 아니라 부안, 고창, 무장, 익산 등 전라도 전역에 걸쳐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처럼 백산에 잔류했던 농민군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탄압 해산시킴에 따라 표면상 고부농민봉기가 3월 13일 완전히 진압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용태의 잔학성과 탐학은 오히려 농민군 봉기가 동학조직과 연합하고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접화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환언하면 고부봉기는 전운사 조필영과 균전사 김창석에서 시작하여 고부군수 조병갑에 이르러 폭발하였고, 안택사 이용태에 의해서 무장봉기(茂長蜂起)로 발전되었던 것이다.<sup>36)</sup>

### 3. 무장봉기(茂長蜂起)의 역사적 의의

무장봉기는 전라도 일대를 망라한 전국적 근대민중운동의 출발로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혁명적 정치운동으로 전환케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특히 무장에서 기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봉기 이후 이들의 진격 이동 경로와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장봉기의 근대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32) 위의 책, 동학난과 고부함락정의 격문을 참조. 호남창의소 이름으로 발표한 격문의 내용은 봉기목적이 광제창생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한편 탐관오리들을 처형하고 외세를 구축하는 일에 일반 서리들도 동참하라는 내용으로 되었다.

33) 『承政院日記』, 고종31년 2월 15일

34) 『日省錄』, 고종 31년 2월 26일, 의정부의 틈틈이 참조.

35) 「동학사」, 앞의 책, pp.106-107, 『日省錄』, 고종 31년 4월 24일

36) 「東徒叢書」, 『東學亂記』上, pp.157-158

동학의 후천개벽사상이 동학농민군의 봉기과정에서 발표했던 창의문·격문·통문·4대 명의, 폐정개혁안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창·무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불가피했던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 조건과 주민의 의식성향 및 동학조직의 강제 등에서 타지역에 없는 무장봉기 요인이 발견된다. 고창·무장·홍덕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고창군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 당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북으로 정읍·부안·고부와 이웃하고, 남으로 장성·영광·법성포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동학농민군을 모으고 대오를 정비하면서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연대가 용이한 주요 거점이었다. 고창에서도 특히 무장일대는 다수의 동학농민군 훈련과 전력강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구수(九水)마을과 여시퇴봉이 있었다. 구수마을은 구시내 또는 당산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고창군 공읍면 구암리에 위치하는 곳으로 무장기포의 현장이었다. 현재 이곳에는 무장창의포고비를 건립하여 농민봉기의 성지로 기념하고 있다.<sup>37)</sup> 또한 여시퇴봉은 지형이 야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일대 구릉지역은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장소로서 전력강화를 위하여 이용되었다.

고창지역 주민의 전통적 의식성향은 일찍부터 지식층·이서(吏胥)·농민을 막론하고 대부분 반골적 기질이 강했다. 또한 이 지역은 고려왕조 멸망 후 유민들이 모여 살아온 은신처로서 조선왕조에서는 출사(出仕)와 관계없이 절의를 지켜 온 선비들의 의향(義鄕)으로 특징지어진 곳이었다.<sup>38)</sup> 이러한 지역 특유의 분위기에서 아전·농민·재인·광대에 이르기까지 반골적 민중의식이 싹터왔을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농한기에 동학농민군을 모집하고 훈련이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여건성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운동 외중에서 고창·홍덕의 관아가 소실되었을 때 무장의 관아나 객사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원형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 지역 아전들이 동학농민군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무장현감과 상당수 아전 등 관속배가 동학에 입도했다는 사실<sup>39)</sup>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장봉기는 동학농민군·이서들의 합작품으로서 초유의 민중혁명운동의 시작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무장일대의 동학교세는 봉기 이전부터 포접(包接)이라는 동학조직을 통하여 이미 확산일로에 있었다. 대접주 손화중이 동학에 입도한 후 부안·정읍을 거쳐 무장에 정착하면서 동학교세가 강화되었다. 손화중은 1890년대 이전부터 김덕령, 김개남 등과 활동하던 중 1892년 8월의 선운사비기사건을 계기로 교세를 확장하였다.<sup>40)</sup> 이 사건은 손화중포의 동학교도

37) 원도연, 「동학혁명정신 및 유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언」,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pp.83-88

38) 이기화, 「동학농민혁명과 고창과의 관계」, 앞의 책, p.4

39) 원도연, 앞의 책, p.80

40) 「동학사」, 앞의 책, pp.445-447, 이진영, 앞의 책, pp. 144-145

가 선운사 도솔암 남쪽 석벽에 새겨진 불상 속에서 비결(秘窟)이라는 것을 탈취한 일인데, 이후 무장·고창·영광·장성·고부·부안 등지에서 아전을 비롯해서 농민들의 동학입교자가 수만명으로 급증했다는 기록으로 보아<sup>41)</sup> 손화중포의 동학교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무렵 손화중포에 합세한 지역과 동학접주는 무장의 송경찬·강경중, 고창의 오시영·오하영·임형로, 흥덕의 고영숙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로 인해서 1892·3년의 교조신원운동 당시 이 일대의 동학교도가 삼례취회·보은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후 정부의 탄압과 탐관오리의 가렴주구가 이곳에 집중되었던 것이다.<sup>42)</sup> 전봉준이 무장 구시내(당산)에서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하고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접화할 수 있었던 것도 고창·무장의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과 유관하다.

무장봉기는 고부농민봉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전봉준의 입지가 고부농민봉기 때는 훈장이라는 지역유지 처지에서 민소운동을 이끌었지만, 무장봉기에서는 동학접주 및 무장남접도소(茂長南接都所)의 동도대장 신분으로 기포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이전에 이미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면서 동학농민봉기 성격의 기포(起包)를 계획하고 있었다. 1892년 공주·삼례취회와 1893년 보은·공주취회에서 반봉건·반외세 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민중연합의 혁명을 구상했던 것이다.<sup>43)</sup> 전봉준은 삼례취회 당시 이미 소두(訴頭)로 활약하였고, 한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대원군과 접촉하는 등<sup>44)</sup> 나름대로 거사준비를 위한 독자적 행동을 해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부농민봉기를 통하여 기왕의 뜻을 펼칠 기회를 맞았으나 안택사 이용태의 고부군 장악과 농민군의 해산으로 그는 불가피하게 고부를 떠나 무장으로 피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봉준이 왜 무장으로 피신했으며 그곳에 도소(都所)를 설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장은 고부와 인접해있고, 손화중포의 거점으로서 동학교세가 컸기 때문에 그의 협조가 이루어졌을시 무장기포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에서였을 것이다. 당시의 무장현은 고창·흥덕보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었지만 해안마을이 많고 농지가 적었던 관계로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여 아전과 평민층 세력이 강하였다.<sup>45)</sup> 따라서 서원·사우를 근거로 한 향촌사회의 양반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에 비례하여 동학교세가 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장에서 손화중이 보은·금구취회 때 전라도 각지의 동학교도를 집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전봉준이 손화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장으로 피신

41) 「동학사」, 위의 책, pp444-445

42) 위의 책, pp445-447, 이진영, 앞의 책, p.144-145

43) 배항섭, 「198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역사비평사, pp27-35

44) 이진영, 앞의 책, p.147

45) 박찬승, 「동학농민봉기와 고창지방 향촌사회」,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고창문화원, pp185-186

했을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그는 무장의 동학세력을 단기간에 장악하기 위한 야심으로 무장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통문을 발송하는 등 세를 확산해 나갔다.<sup>46)</sup> 손화중·김개남·김덕령 등 동학접주 중심으로 10개의 군을 도소조직으로 합류시켰다.<sup>47)</sup> 그 결과 3월 15일 동학농민봉기 거사계획에 손화중과 합의하고,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고부농민봉기 단계부터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의 거사계획이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무장기포와 동시에 포고한 창의문은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 최초의 봉기선언문이었다. 창의문의 내용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대의를 표방하여 동학의 인본주의 후천개벽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48)</sup> 여기서 공경이하 방백·수령들의 도덕성 타락으로 인한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보위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봉기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였다. 거병목적이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근본적 가치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창의문 발표 당시 전봉준의 혁명의지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에게 어느정도로 호응을 얻었는가 하는 것은 손화중과 세를 규합한지 불과 수일만에 4천여명의 군중이 당산에 집결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의 진군경로를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무장(3월 20일) - 고창·홍덕(3월 21~22일) - 고부(3월 23일) - 태인(3월 26일) - 금구·원평(4월 1일) - 부안(4월 4일) - 고부(4월 6일) - 정읍·홍덕·고창(4월 7일) - 홍덕·무장(4월 8일) - 영광·함평·장성(4월 12~21일) - 금구·원평(4월 25일) - 전주(4월 27일)의 순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운동에 합류한 지역은 전라도 지역에서만 계수해도 34개 지역에 달하였다.

동학농민군 주력부대가 거쳤던 무장·고창·홍덕·부안·고부·정읍·태인 등은 교조신원운동 당시부터 지역간 동학조직의 연대가 이루어진 곳이다. 그 중에서도 무장·고부·태인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주도한 3대 동학조직인 손화중포·전봉준포·김개남포가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이곳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혁명운동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무장 당산에서 봉기한 이후 동학농민군이 혁명을 선언한 것은 고부의 백산(白山)에서였다. 백산은 현재 부안군 용계리에 위치한 곳으로 전봉준은 여기서 동학농민군의 세를 7천여명으로 확장한 후 4대명의(四大名義)와 격문을 발표하여 혁명의 대의를 천명하였다. 이때부터 전봉준은 명실공히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대표주자로 부상하였다. 손화중과 김개남도 총관령으로 추대되는 등 혁명의 이념과 조직·목표가 설정되면서 백산대회는 무

46) 『고종실록』 고종31년 3월 23일, 『日省錄』, 고종31년 3월 23일 條 『承政院日記』, 고종31년 3월 23일 條

47) 『동학사』, 앞의 책, pp.466-467, 박찬승, 『동학농민봉기와 고창지방의 향촌사회』,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p.177

48) 『동학난기록』上, 취어, 무장동학배포고문 참조, p.142



장에서 의창의 명분을 혁명 운동으로 구체화하였다.

동학농민군의 4대명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살생하지 말 것
- ② 충성과 효도를 다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
- ③ 서양·일본인을 몰아내고 성도를 받게 할 것
- ④ 군대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서 權貴를 진멸할 것.<sup>49)</sup>

이것은 동학농민군이 지켜야 할 일종의 강령으로서 봉건적 사회신분제 폐지와 부패한 집권세력응징에 따른 새로운 정치질서 구현이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어서 호남창의대장소재백산(湖南倡義大將所在白山)의 명의로 발표한 격문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일반민중과 소리(小吏)들도 대의를 가지고 거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한 대목이다.<sup>50)</sup> 고부농민봉기 때의 초기 격문이 의리를 명분으로 했다면 무장기포 후의 격문과 4대강령은 혁명적 의지의 원칙적인 선언이었다고 하겠다.

동학농민군은 이후 4대강령에서 보여준대로 전주를 향하여 계속 북상하였으나 경군(京軍)의 출동정보에 접하면서 진로를 남으로 돌렸다. 부안과 법성포에서 장시에서의 분전수세(分錢收稅) 금지를 요구하고 전운사 운영의 폐단을 지적하였다.<sup>51)</sup> 이어서 동학농민군은 고부의 도교산 황토현으로 이동하여 감영군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다.<sup>52)</sup>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사기가 높아졌으나 남하하여 다시 고창으로 들어갔다. 전주를 경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은 무장 여시외봉에서 3일, 영광에서 4일간 체류하면서 진법(陣法)을 교련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농민군의 규율단속을 위하여 행동준칙 12개조 계율(戒律)<sup>53)</sup>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무장봉기 당시 창의문에서 표방했던 유교적 인도주의 정신과 같은 맥락에서 동학농민군의 행동강령을 다시 강조한 것이었다.

폐정개혁의 의지를 다시 밝혔던 것은 동학농민군이 함평으로 진격한 이후였다. 각종 통문·정문(呈文)·소지(所誌)를 발표하였는데 이때 대원군이 폐정개혁의 선두에서 감국(監國)

49) 『大韓年史』, 국사편찬위원회판, 上卷, p.74

50) 『동학사』, 앞의 책, pp.467-468

51) 『동학난기록』, 上, p.170

52) 위의 책, pp.163-164

53) 김윤식, 『續東清史』, 上, p.311, 『東匪討錄』, pp.319-320, 『친도교회월보』, 259, p.34

행동준칙은 진병준이 혁명운동의 기본정신으로 제시한 革舊鼎新(舊濟窮)의 8자와 맥락을 같이한다.

- ① 降者接待 ② 困者救濟 ③ 貪者逐之 ④ 順者敬服 ⑤ 走者勿追 ⑥ 飢者饋之 ⑦ 奸者息之 ⑧ 貧者賑恤
- ⑨ 不忠除之 ⑩ 逆者曉諭 ⑪ 病者給藥 ⑫ 不孝殺之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54)</sup> 폐정개혁요구 움직임이 전라감사를 상대로 구체화된 것은 동학농민군이 장성을 점령하면서부터다. 경군(별동대) 700여명과 최초로 접전한 장성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의식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55)</sup> 이미 언급했듯이 이 때까지는 동학농민군의 의식수준이 충효에 근거한 유교적 가치관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군과의 대결을 피하였다. 그러나 장성전투에서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폐정개혁요구안 13개항을 제시할 정도로 정치 참여의식의 적극성을 보였다. 그 내용을 대강 요약하면 전운사·군전사를 혁파하고, 탐관오리와 보부상의 작폐를 금하고, 외국인들의 상행위와 포구에서의 미곡판매행위를 엄금할 것 등 경제문제에 집중된 반봉건적 요구사항으로 되었다.<sup>56)</sup> 아울러 폐정개혁의 감국을 대원군에게 요구하였는데 여기서 효제충신(孝弟忠信)에 입각한 유교적 가치관도 함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성격의 사회구조 개혁 의지는 전주에 입성한 후 요구했던 12개조 폐정개혁안에 그대로 이어졌다.<sup>57)</sup> 이 두 번에 걸친 폐정개혁 요구안은 대부분 일반민중의 민원이 삼정문란으로 인한 경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취제도와 봉건적 지도체제의 전면적 개혁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인간평등사상의 표현으로서 동학의 인본주의 후천개벽사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부농민봉기와 사실상 혁명운동으로 시작한 무장봉기 과정을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할 때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무장봉기의 역사적 의의를 든다면 자연발생적인 민란으로 시작했던 고부민란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혁명운동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보여준 창의문, 통문, 격문, 폐정개혁안은 무장봉기의 목적과 명분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서 사인여천(事人如天)·3경(敬天·敬人·敬物)의 인본주의 후천개벽사상의 현실화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부군의 농민봉기와 무장봉기사실은 근대적 민중의식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알 수 있는 생생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54) 『兩湖集賢時譜錄』, 『동학난기록』上, p.207, 『隨錄』, 『총서』5, pp.319-320

55)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시기 농민군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11, p.57

56) 『大韓李年史』上, 고종31년 甲午條, p86

57) 『동학사』, 앞의 책, pp.482-483

# 전봉준의 가계와 태성설에 대한 재조명

이 기 화  
(고창문화원장)

## I. 들어가는 말

1894년 갑오년은 조선말기에 밀어닥친 근대화의 여명과 더불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민중의 물결이 의식되면서 새로이 싹튼 궁반(窮班)과 농민의 저항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구태에 찌려있는 질서와 양반사회의 퇴폐의식에 진저리가나다 못해 이에 대한 윤리적 항변으로 비약되어 마침내 동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태동시키면서 사대와 봉건의 굴레를 벗어나고 자라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권 운동으로 승화된 거룩한 새 역사의 장을 열고 동학 농민 혁명의 농민 봉기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천하의 대본을 민심에 둔 이 혁명은 민권·민생의 바탕 위에 우리 민족의 자조·자율·자강을 위한 민중의 항전으로써 반봉건 반사대, 반침략주의의 가치아래 민족의 자주의식과 인권 및 자유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고 자주 독립의 정신적 근간으로 이룬 새 역사 창출의 민족적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불과 1세기 남짓한 세월 속에서 이와 같이 이 엄청난 역사적 몸부림을 주도했던 전봉준의 태생에 대해서만은 그동안 여러 설이 부분하여 혼선이 거듭됨으로써 혼미일색이

있던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

토인비의 말마따라 한국사람들은 해양에서 대륙을 있는 반도국가의 지세로 인해 다리 위에서 사는 추세가 되어 매사에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여 긴장한 나머지 빨리빨리의 습성에 폭 빠져 버린다는 이와 같은 습속 때문에 지난 일을 쉽사리 잊고 새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근세의 첫새벽을 알려준 민중혁명을 통해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기치에 담긴 거룩한 의지의 자욱이 이리도 쉽게 묻혀 버렸단 말인가

안으로는 낡은 신분질서를 뜯어고치고 모든 민족구성원이 평등의 원칙아래 자유를 누리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가는 근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였고 밖으로는 이런 내적인 역사발전을 해치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화의 절대적인 힘을 얻어내고자 맨 앞에 섰던 혁명의 영도자 전봉준의 족적이 이렇게도 허망할 수는 없는 일.

필자는 전문사학자는 아니나 오직 향토사를 지키는 순수한 열정으로 여기에 뜻을 세우고 오랫동안 집념을 두고 전력한 보람이 있어 지난 1989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는 「전국 향토사 연구 발표회」에서 전봉준의 생시에 간행된 입술보(壬戌譜)와 병술보(丙戌譜)를 통해 전봉준의 태생이 고창 당촌임을 밝혀 내고 또한 전봉준은 삼재공(三宰公)파가 아니고 문효공(文孝公)파임을 확인하고 그 뿌리를 내린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정읍시에서 주재한 「동학 농민 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학술 토론회」에서 「전봉준 장군 출생지 정립」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전봉준은 고부 진장과 차복리 부근의 마을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에 고창 당촌으로 옮긴 것으로 본다는 새 주장이 나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학문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추정이나 임의 규정은 무의미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이것들은 결코 확인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소신껏 주장하면서 그 동안 발로 뛰어 현장을 확인하고 축적해 왔던 전봉준이 살아 있을 때 간행된 족보와 대대로 이어진 천안 전씨 세보 등을 조사 연구해왔던 생생한 경험의 산지식을 바탕으로 차제에 빈틈없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전봉준이 고창 당촌 태생임을 확인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 II. 천안전씨 족보와 전봉준의 가계

족보 또는 세보라 함은 어느 한 씨족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가계·기록을 계통적인 하나로 합쳐서 정리한 계보이다.

그러므로 족보는 으레 씨족원 공동의 발의와 족보에 수록될 명단 및 관련기사의 작성, 제출 그리고 편찬 간행의 경비 부담 등 공동의 노력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

全氏는 중국 夏禹씨 후손이 東國으로 건너온데서 근본을 이루고 있는데 시조 섭(聶)이 백제초기에 환성군(歡城君)에 봉군이 되면서 그 후손들이 천안을 관향으로 삼은데에서 비롯되어 천안의 망족(望族)으로서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아래에 적은 것을 보면 천안전씨의 세계(世系)는 족보의 기록 실전으로 오랫동안 그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환성군은 백제 다루왕때에 병상(兵相)공이 된 2세 호익(虎翼)에게 겨우 한 대를 전하고 그후로는 실계하여 전하지 못한 채 병상공으로부터 승상(丞相)공 종도(宗道)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가 몇 대가 되었는지 상고할 길이 없다.」

《天安全氏 戊子譜(1768)序文 中에서》

즉 다루왕 말년인 정축년(서기77년)으로부터 고려 태조 원년인 무인년(서기918)까지의 무려 842년의 세계가 실전 된 것이 몇 대 인줄을 알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全氏는 천안의 토성으로서 세상에서 명문우족으로 칭하였는데 근대에 이르러 후손이 쇠약하여 입신양명의 뜻을 못이루고 번성하지 못함에 그 개탄함을 어찌 다 하리요, 하물며 선세의 족보를 지돈영(知敦寧)·전자완(全自完)의 사위 현감 설갑손(?甲孫)의 집에서 유실되었으니 이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선세의 명호(名號)와 세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더욱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에 불초후손이 간신히 계통을 찾아서 그 대강을 기록했으나 병상(兵相)공으로부터 승상(丞相)공 이전의 기록은 그 세계가 상세하지 못하니 한탄한들 어찌할까 가는 곳마다 동종(同宗)이 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다행히 뒷날에 만나서 물어보는 것이 가할 것이다.」

《天安全氏 丁亥譜(1587)序文 中에서》

정해(丁亥)보의 서문을 쓴 전세익(全世翼)은 또한 이렇게 적고 있다.

「이렇게 됨에 그 이후 족보를 편찬한 분들이 부득이 승상공(宗道)으로서 1세를 삼아 그 하계를 잇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경상(卿相)들이 배출되어 봉군이 됨에 그 훈업과 명적이 사기에 기록되어 충건(忠建)공 무강(武康)공은 순직 보국하였고 충숙(忠肅)공은 청백으로 같고 닦아 봉공을 다 하였으며 문효(文孝)공은 급류에 용퇴하여 세한송백(歲寒松柏)의 굳은 절개로써 심기를 다하였고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영평(寧平)과 문충(文忠)공의 두 집 자손이 대대로 규조(圭組: 관직과 같음)를 답습

하여 면면히 이어져 끊이지 않으므로 충효와 절의가 승계되어 빛나고 밝았으며 강상(綱常)이 잘 지켜 정문(旌門)의 성전이 찬란하였으니 이 어찌 전씨의 덕을 심어내리는 경사가 아니겠는가」

《天安全氏 戊子譜(1768) 序文 中에서》

「전씨가 천안으로 관향을 삼은 것은 백제 건국공신인 시조 환성군을 원천으로 삼았기에 비롯된 것이다. 병상공이래 승상공에 이르는 중간의 대수가 실전되었어도 그 사이에 지(至)자를 써서 한줄 가운데에 계통을 연결하여 할수 있었다. 그 이후 승상공으로부터 지후(祗侯)공 인량(仁亮)에 이르도록 대대로 작위를 얻어 천안의 고후(古號)로 봉군을 받아 줄지어 사패지를 삼아 내려오니 전씨들은 천안을 돈향으로 줄곧 이어 온 것이다.」

《天安全氏 戊子譜 拔文中에서 후손 全在泰》

「환성군 섭(攝)으로부터 병상공 호익에 이르는 불과 2세 후에 족보가 실전되어 계파가 상세하지 못하고 승상공 종도에 와서 비로소 그 대수가 나타났으니 열조의 절의가 빛나고 공훈의 업적과 아울러 정문의 번성함은 삼한 거족으로서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수 없다.」

《天安全氏 戊子譜 발문중에서 후손 全始述》

「병상공 이래 승상공 사이에 실전된 대수는 12세가 된다.」

《天安全氏 壬戌譜(1862) 拔文中에서 후손 全默容》

이상의 열거한 내용들을 음미해보면 천안전씨는 백제국의 시조 온조황을 도와 개국공신에 오른 시조 섭이 국가유공자로서 환성군에 봉군이 된 이후 BC18년 ~AD76년에 이르는 약 90년간을 섭과 호익 두 부자간에 크게 활약한 이후 어떤 연유에서인지 AD77년부터 고려태조 원년간의 842년동안 족보의 실전으로 대를 잇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허송세월하였는데 그 이후 족보 편수자들이 부득이하게 정승반열에 이른 승상공(宗道)을 1세로 내세워 그 뒤의 세계를 잇게 하였다.

이로부터는 천안부원군 충건공(樂), 익찬공신 무강공(洪술), 문하시중 평장사 충숙공(忠佑), 천성군 문정공(世柱), 합문지후공으로 좌상에 오른 인량(人亮), 병부상서로 영평군이 된 문충공(昇), 보문각 제학에서 진현관 대제학 상장군에 오른 파조 문효공(信) 등 쟁쟁한 세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안전씨 족보는 초판본인 성화보(成化譜 : 1470)를 위시해 1989년에 발행된 기사보(己巳譜) 16권 광주 호남인쇄소 출간에 이르기까지 28회의 족보발행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밖에도 대사헌을 지낸 구한말의 충신 송병선(宋秉璿)이 서문을 써준 병술보(丙戌譜 : 6권 1886)와 계사보(癸巳譜 : 1권 1953 전주발행)등이 더 간행되었다.

그러나 천안전씨 대동보고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세보의 편수 내력을 보면 아래와 같다.

天安全氏 世譜編修內譯					
回 數	卷 數	譜 名	發行年度	修譜場所	發行人
一回	逸傳	丁亥譜	1587	公州新阮寺	世翼
二回	"	己酉譜	1609	天安豐歲院	有道
三回	單卷	甲寅譜	1674	公州甲寺	克享
四回	三卷	甲申譜	1704	鎮安金塘寺	一會
五回	五卷	戊子譜	1768	錦山身安寺	在泰
六回	九卷	庚申譜	1800	天安儉溪書院	始祿
七回	十二卷	辛卯譜	1831	天安儉溪書院	泗性
八回	十八卷	壬戌譜	1862	錦山廣業齋	默容
九回	十六卷	甲寅譜	1914	天安儉溪書院	達弘
十回	十三卷	辛未譜	1931	天安邑	載敏
十一回	十卷	丁酉譜	1957	天安儉溪書院	海龍
十一回	五卷	丁酉譜	1957	전주인쇄소	基洪
十二回	十七卷	戊申譜	1968	大田譜典社	中權
十三回	七卷	丙寅譜	1986	大田譜典社	甲植
十四回	十六卷	己巳譜	1989	광주 호남인쇄소	雲鍾

2003년 정읍에서 우윤씨가 발표한 「전봉준 장군 출생지 정립」에서 「병술보」는 전봉준의 가계와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한 착오로 규정되고 싶다. 왜냐하면 전봉준의 기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족보는 「병술보」이전의 「임술보」(1862)가 또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60년대 이후 전남·북을 누비고 다닐 때 전봉준 장군이 살아 있을 때 간행된 족보 갑자보(1864 : 서울발행)와 을축보(1865 : 함평발행) 계사보(1893 : 영암발행)등을 찾으러 심혈을 다하였으나, 찾아가 보면 녹두장군이 역적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소장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여 모두들 불태워 버렸다는 대답뿐이었다.

병술보의 입수로 자신을 얻은 필자는 녹두장군이 고창태생이었다는 방증자료 수집에 열을 올려 보았으나 첩첩산중이었다. 역적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료이므로 왜놈들의 감시가 더욱 두려워 깨끗이 인멸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임술보의 입수는 1980년이였다. 전주향교를 찾아 관내에 천안 전씨들의 세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완주군 봉동면 낙평리(洛平里)에 사는 전태연(全泰淵)씨 집을 찾아 그 집에 소장되고 있는 십여질의 천안전씨 족보를 보게되어 그속에서 기대했던 「임술보」와 「신미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임술보]는 18권중 1권과 16권이 빠지고 16권이 모두 있어서 기대를 걸고 [병술보]에 수록된 녹두장군의 계보를 상계에서 더듬어 내려가는데 전봉준의 7대조까지 확인되고 그 아래는 16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마침 빠진 책이 바로 16권이였다. 사연을 알아본즉 전태연씨의 대답이 일제치하 대동아전쟁기에 수시로 밀어닥치는 가택수색이 두려워 1권과 16권책을 불살랐다는 것이다.

꽤빠진 필자가 안타까웠던지 전씨는 그의 조부께서 임술보를 금산 광업재에서 간행할 때 수찬으로 참여한 일이 있어 들은 얘기라며 서울 장서각에 한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보를 띄어 주는 것이였다. 서울에 올라가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국립도서관의 족보장서실에서 문제의 16권을 열람할 수가 있어서 茶帳에 실린 高敝派(連山公曾孫 松菴公 諱 五常孫 彦國派)의 기록을 낱낱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신미보에는 전봉준의 가계는 임술보의 내력과 같이 문효공의 5세손 연산공(連山公 : 敏)파 이나 소파명칭만 고창 아닌 고부(古阜)로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필자가 조사해온 임술보와 병술보 그리고 신미보의 계대(系代)표를 작성 비교하기로 한다.

※ 이 계대표의 [임술보]와 [병술보]는 시조 2세 그리고 계대를 잇지 않은 12세의 계보와 계대가 이어진 종도에서 봉준까지의 24세계가 형성되어 있고, [신미보]에는 시조 이후 전봉준까지의 53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壬戌譜(1862)	丙戌譜(1886)	辛未譜(1931)	
시조	聶	聶	聶	1
2세	虎翼	虎翼	虎翼	2
	槃	槃	槃	3
	舜成	舜成	孝誠	4
	汝均	汝均	舜恭	5
	雲喬	雲喬	萬里	6
	元根	元根	實	7
	愼	愼	元浩	8
	方春	方春	謹	9
	敬智	敬智	鈞監	10
	而敏	而敏	晉德	11
	瑗	瑗	孟	12
	億旬	億旬	敏	13
	天奇	天奇	百金	14
1세	宗道	宗道	昌瑜	15
2세	樂	樂	林	16
3세	洪述	洪述	載	17
4세	忠佑	忠佑	完	18
5세	世柱	世柱	植	19
6세	仁亮	仁亮	赫	20
7세	昇	昇	就洪	21
8세	信	信	加里	22

9세	成安	成安	良	23
10세	德芳	德芳	得恭	24
11세	謹	謹	太堯	25
12세	敏	敏	宗道	26
13세	季鉞	季鉞	克貴	27
14세	禧	禧	潤	28
15세	五常	五常	樂	29
16세	誠	誠	立中	30
17세	彦國	彦國	孝淑	31
18세	厚徵	厚徵	洪述	32
19세	萬紀	萬紀	忠佑	33
20세	相圭	相圭	世柱	34
21세	道臣	道臣	仁亮	35
22세	碩豐	碩豐	昇	36
23세	基永	基昶	信	37
24세	鐵爐	炳鎬	成安	38
			德芳	39
			謹	40
			敏	41
			季鉞	42
			禧	43
			五常	44

			誠	45
			彦國	46
			厚徵	47
			萬紀	48
			相圭	49
			道臣	50
			碩豐	51
			基昶	52
			瑋準	53

위에 제시한 세가지 족보의 계보를 분석해 보면서 새로 제기된 주장에 대응하고자 한다. 우윤씨가 발표한 <전봉준장군 출생지 정립>중 [병술보]에 대한 검토에서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첫번째 [병술보]와 [신미보]가 시조이후 병호에 이르기까지 세대수가 다르다는 점.

두번째 [병술보]와 [신미보]에서 종도(宗道)의 세대수가 각각 다르고 가계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

[병술보]의 순성(舜成)은 확인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점.

세 번째 [병술보]에는 [신미보]에 없는 덕신(德臣)이 상규(相圭)의 차자로 끼어들고 있는 점.

네 번째 [병술보]에는 [신미보]에 없는 석운(碩雲) 도신(道臣)의 장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병술보]는 상규의 후손들만이 갖는 절박한 동기에서 만들어진 위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앞에 적은 선대의 예시에서도 밝혀 놓았지만 천안전씨 족보의 속성상 2세인 병상공 호의 이후 승상공 종도에 이르는 842년간의 계대 실전으로 족보가 단절되고 있음은 그 후손들이 이미 자인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계대수가 12세인 것으로 밝혀 놓고 있다. 그러나 더 좀 상세히 유추해 보면 842년간의 세월은 보화상의 개념으로 봐도 1세를 30년으로 잡을 때 28세쯤으로 어림할 수 있듯이(신미보)의 세대인 23세로는 종잡하지 않는 셈이 되고 있다.

[병술보]와 [임술보]는 세대간의 계대기록면에서 그 사이를 똑같이 12세로 매꾸고 있고 종도를 1세로 기산하여 24세를 누려온 셈이 되고 있어 [병술보]가 [임술보]의 기록을 절대 존중하고 답습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신미보)는 기존의 다른 구보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구보의 연원을 존중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족보간행에 있어 독단의 창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금을 막론하고 간행경비를 조달하는 수법으로 문중회이나 편찬위원회에서 확실한 의결을 거쳐 어느 절손된 세계에 은근히 끼어주는 사례는 더러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막대한 교섭 자금이 마련되어야 함으로 가난한 집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성사되더라도 새로 입도된 사람은 새로운 집안행세를 얼마동안은 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만에 하나 위보가 사실이라면 전씨문중에서 인정도 안해주겠지만 전봉준 집안도 당분간은 감히 양심상 전씨문중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도 명약 관하한 일이 아니겠는가.

항차 가난한 전창혁의 가세 정도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처지인 것을 감안하면 위보일 가능성은 절대 희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순성(舜成)이 가상의 인물이거나 덕신(德臣)이 상규(相圭)의 아들로 끼어들고 석운(碩雲)이 도신의 장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 등은 이것이 조작이라면 [임술보]와 [병술보]의 기재사항이 똑같은 점으로 보아 [임술보]보다 그 훨씬 이전의 구보 간행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신미보의 간행연대로 보아 상규의 아들이 도신뿐이며 도신의 아들 또한 석풍뿐으로 기재하고 있다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상규의 증조되는 언국(彦國)이 무후 절손되고 있는 것은 [신묘보](1830)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무엇으로 답해 낼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하려거든 대한민국 족보이면서를 먼저 터득한 연후에 토론의 광장에 임해야지 족보 간행의 ABC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여하튼 우윤씨가 제기한 의문점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되묻고 싶을 뿐이다. 족보 제작의 비리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저절러진 소위 양반장사하던 가난한 문중들의 비상수법의 결과라고 치부하면 될것으로 생각된다.

1953년 피란 시절 전주에서 만들어진 삼제공파 세보에 이미 절손된 난에 녹두장군 윗대

로 8대를 가공인물들로 채우고 조작해낸 줄도 모르고 수십년동안 문효공파 아닌 삼제공파 후손으로 교수, 학생,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북새통을 떨었던 것을 1980년대에 와서 필자가 밝혀낸 역사 왜곡임을 우윤씨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로부터 족보는 참고사항이지 결코 증빙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성씨문중 족보에도 이와 같은 옥의 티를 고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줄 믿는다. 대부분 그런 단면의 속성이 내재되고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묵과해주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각설하고 임술보를 통한 전봉준의 가계를 보면 그 상계의 세계가 천양군(天陽君 : 仁亮)에서 둘째이들 문충공(文忠公 : 昇)파로 분파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문충공의 6세손 연산공(連山公 : 敏)파로 갈라서고 다시 연산공의 증손 송암공(松菴公 : 五常)파로 세파되었다가 송암공의 손자(彦國)파로 갈라서서 고창파를 이룬다.

《壬戌譜 16권 榮張 참조》

그러나 전봉준이 13세 되던 해 봄에 고부로 이거(1867, 고로들의 증언한 이후로 만든 (병술보) (1886)의 기록을 보면 고창파인 송암공손파의 기록은 고부파로 바뀌어 지는데

《丙戌譜:天安全氏 世譜 卷之三 四十四面 참조》

여기에서 짚고 넘어 갈 일은 우윤씨의 추정사항이다.

「전봉준 집안은 조부가 돌아가자 어떤 이유에선지 전창혁의 종형제들이 고창 덕정면으로 이주하고 전창혁 또한 유년기인 전봉준을 데리고 당촌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옮겨 살았기에 당촌지역이 고부보다 전봉준의 유년기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윤씨는 단정지었는데 필자의 견해는 전봉준이 태어나서 성장한곳이기에 고창당촌지역에 유년기의 흔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고부에는 유년기에 살지 않았기에 유년기의 흔적이 전무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순리이며 사실 규명 일터인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확인 자료도 없이 이렇게 단정하고 추정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상규의 후손들만이 갖는 절박한 동기에서 만들어진 위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임술보)에 실려있는 고창파의 기록을 상규의 후손들이 고부파로 둔갑시킬 하등의 이유와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해답(신미보)을 간행할 당시에는 상규의 후손들인 고창과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린 이후인지라 거의 다 희생되어 말할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주역이었던 전봉준의 부자지간은 이미 고부로 이거한 이후이고로 족보편수자들이 임의대로 주거지를 쫓아 고창파를 고부파로 고쳐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정읍으로 이사하지 않고 당촌에 살았던 고창파들은 인근에 사는 고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30여명의 기마병 수비대에 포위되어 당촌마을사람 전원과 가금 가축들까지도 일시에 몰살을 당한 이후인지라「사자는 말이 없는 법」신미보는 편수자들 의도대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겠는가

또 [신미보]와 [정유보]에 없는 석운(碩雲)마저 끌어 들여 도신(道臣)의 장자로 삼았는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상규대에서 절손이 되었는데 도신과 덕신을 끌어들여 새로운 가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등 철두철미한 전문가께서 이런 우문이 웬말인가 묻고 싶다.

왜냐하면 [병술보]와 [임술보]는 1887년 이전에 만들어진 족보이고 [신미보]와 [정유보]는 1930년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인데 의문의 기준을 여기에 맞추어 놓고 그이전 족보의 기록을 나무란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겠는가를 되묻지 않을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전봉준의 가계를 정리하는데는 희미한 상계족보다는 [임술보]에서 1세로 들어나고 있는 승상 종도(宗道)이래에서 파조인 문효공(信)이후를 밝히는 쪽이 훨씬 근접성이 더할 것 같아 그런 추세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1세(宗道)이래로 파조인 8세 문효공에 이르는 동안 려조사회에서 명문가도를 달려 온 남다른 대단한 가문이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천안부원군으로 충건공인 2세(樂), 영산군(寧山君)으로 무강공인 3세(洪述), 창백으로 환계군(歡溪君)이오 충숙공인 4세(忠佑), 천성군(天城君)으로 문정공인 5세(世柱), 천양군(天陽君)으로 좌상을 지낸 무절공인 6세(仁亮), 영평군(寧平君)으로 병부상서를 지낸 문충공인 7세(昇)등 봉군(封君)되고 시호 받은 이가 무려 여섯분이나 되고 봄에 능히 짐작이 된다.

- 파조인 문효공(信 : 1276 ~1339)은 자, 이립(而立) 호, 백헌(柏軒) 시호, 문효로 충숙 왕조의 학자였다. 충열왕27년에 문과급제하여 충열, 충선, 충숙, 충혜 4조에 외직으로 안동, 김해 함안, 수원, 경주, 복주등의 부사(府事)를 지내고 내직으로는 사헌부 장령, 보문각 제학, 진현관, 대제학 상호군을 거쳐 봉익동지밀직사사(奉翊同知密直司事)가 되었으며 정2품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에 이르렀다가 충숙왕 복위1년(1332)에 사퇴하고 8년 동안 한가로운 여생을 보내고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충숙왕조의 문학자 최해(崔濩)가 쓴 문효공의 묘지명에서도 전신(全信)은 병부상서를 지낸 승(昇)의 아들로 성품이 엄격하고 근면하였으며 집이 어려웠으나 산업에 뜻을

두는것보다 직무에 성실하였고 당대의 현사(賢士)인 백이정(白?正) 김제인(金齊顔) 이 제현(李齊賢)등과 교의가 두터웠으며 그의 사적은 동문선 명현록 고려사 36·38권과 동국여사승람의 천안군 우거편, 수원도호부 명환편 등에 실려 있다고 써 놓았다.

그리고 숙종4년(1678)맹동에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판서인 강백년(姜栢年)은 천안전씨 [갑인보]서문을 쓰면서 문효공은 일찍이 빛나는 환로에 드날리었다가 용퇴하여 오랫동안 한가로히 지내면서 자호를 백헌(柏軒)이라 하여 세한후조(歲寒後凋:추운 연후에야 송백의 후조를 안다)의 뜻을 붙여 놓았더니 위대하게도 그 후손들이 오랫동안 송백을 전하여 대대로 사족(士族)이 되었다고 썼다.

- 9세(成安)은 석탄 이존오의 문인으로 충숙왕조에 사의서(司儀署)의 승(承)으로 있다가 수원부사로 있을때에 객사 운금루(雲錦樓)를 지었는데 목은 이색(李穡)이 기문을 지어 치적을 칭찬하였다. 또 보한재(保閑齋) 신숙주(申叔舟)가 지은 증수기문에서도 그의 공직상을 찬적하였으며 그의 기록은 목민심서와 고려사에도 상세히 실려있다. 세아들을 두었는데 첫째(德新)는 사헌부 장령이요, 둘째(德芳)는 문과로 선부전서(選部典書)를 지내고 셋째(德隣)는 청사목사를 지낸 뒤 1414(태종14)년에 뜻한바 있어 천안에서 고창 무장고를 장사산(長沙山) 남녘에 내려와 은거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여생을 마치니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무장땅에서 700년 가까운 세월을 200여 세대가 세거지를 삼고 살아오고 있다.
- 여기에서 언급해 둘 사항은 그때 천안에서 무장땅에 낙향 은거한 덕방의 아우(德隣)후손들이 뒷날 갑오년 농민전쟁이 일어날 때 그 혁명을 주도한 전봉준 장군을 크게 도와 창의포고문을 선포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식거사가 된 무장땅의 1차봉기가 무난히 이루어지도록 그 뒷역할을 감당해 낸 사람들임을 밝혀 둔다.
- 10세(德芳)은 위에 적은 대로 문과급제 인물로서 전봉준 가계를 이어낸다.
- 11세(謹)은 만년에 진도군수를 지냈다. 그의 묘갈명은 참판 민병승(閔丙承)이 썼다.
- 12세(敏)근의 넷째 아들로 성균생원에 올라 통정대보로 연산(連山)현감을 지냈다.
- 13세(季新)은 문과급제하여 정6품 승훈랑(承訓郞)으로 공주 판관이 되었다.
- 14세(禧)는 무관으로 종7품인 사정(司正)을 지냈다.
- 15세(五常)은 사정 희(禧)의 둘째아들로 그의 호는 송암(松菴)이다.  
세조때 종6품 선무랑(宣武郞)으로 서북지방에 오랑캐가 침범함에 그가 창의하여 갈성 효충으로 난리를 소탕함에 2등공신이 되었다.  
말년에 온양 배병산(排屏山)아래 퇴거하여 자제를 가르쳤다.
- 16세(誠) 음직으로 정5품 통덕랑을 지냈다.
- 17세(彦國) 연산공(敏)의 증손 송암공(五常)의 손(彦國)으로 이른바 고창과의 어른이다.

- . 18세(厚徵) 묘는 태인 고현면 호암 자좌.  
배 - 全州崔氏(묘, 태인 고현면 덕치묘좌)
- . 19세(萬紀) 묘 - 남원 북면 신치 병좌.  
배 - 옥천조씨(묘, 쌍조)
- . 20세(相圭) 묘 - 순창 하치동 조동 후록 임좌  
배 - 번남박씨(묘, 쌍조)
- . 21세(道臣) 자 百源, 1750년생  
묘 - 임실 강진면 龍동 간좌  
배 - 김해김씨 (묘 동원 上下兆)
- . 21세(德臣) 자 奇源  
묘 - 정읍 압곡 유좌
- . 22세(碩雲) 자 君甫, 무신생  
묘 - 임실 강진면 울치 동록 임좌  
배 - 밀양박씨
- . 22세(碩豐) 자 允甫 경술생  
묘 - 고창 맥모등 계좌  
배 - 인동장씨 정사생
- . 23세(基永) 字 - 仁瑞, 丁亥生  
언양김씨 신사생
- . 24세(鐵爐) 을묘생, 12월 3일생

### Ⅲ. 전봉준의 태성설에 대한 검토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 난지 110주년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봉준의 태성설은 그 설이 너무도 구구하고 진원지로 알려졌던 정읍지역만 해도 무려 다섯곳이나 알려지고 있어 혼선일로나 그동안 비중 있게 알려진 태생설 몇 가지를 놓고 그 진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 구미리(龜尾里 : 완주·봉동면) 태생으로 어려서 태인현 감산면 계봉리(감곡면 황새얼)로 이주하였다는 설



둘째, 태인현 산외면 동곡리 지금곡(지금실)태생설  
 셋째, 현 정읍군 이평면 조소리 태생이라는 설  
 넷째, 고부군 공동면 시목리(감냉기)태생설  
 다섯째, 고부군 남면 진장 문하 차복리 부근설, 고창현 덕정면 당촌(현 고창읍 죽림리 당촌부락)에서 출생하여 소년기에 고부로 이거하였다는 설 등이다.

○ 전주 태생설은 장봉선의〈정읍군지〉전봉준 실기 내용에 보면 전봉준은 전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태인현 감산면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희박하고 김의환의〈전봉준 실기〉에는 뒷날 전주사람들이 그를 숭모하여 꾸며낸 말이라고 한다.

○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태생설 〈최현식의 갑오동학 혁명사. p226〉은 자료에 의하면 전봉준이 18세(1872)에 이거하여 근20년 우거한 것으로 추산되며 마지막 이거한 사실 이외에는 분명치 못하고 〈신복룡의 (전봉준의 생애와 사상)(영양각 1982. p36)〉또한 신복룡교수의 새로운 주장에 의하면〈전봉준의 생애와 사상(영양각 1982. p36)〉그 마지막 이거했다는 동곡리 지금실이 아니라 지금실과는 2km쯤 떨어져 있는 동곡리 원동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정읍군 이평면 조소리 태생설 〈김상기의(동학과 동학란)(한국일보사 1975. p100)〉은 전봉준이 살던 집이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어 1974년 해체보수공사를 할 때 1876(무인)년 2월 26일자의 상량문이 나타나게 되어 정읍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가라고 우기던 이 집을 전봉준이 23살 때 지은 것이 확실해져 그동안 술하게 미화되었던 이야기들을 일축해 버렸고 문화재 명칭도 생가에서 구거로 격하되고 말았다. 또한 1895년 2월 9일 일본 영사의 문초에 대한 전봉준의 대답을 기록한 재판기록인 〈전봉준 공초〉중 일차 공초에 보면“너는 태인에서 살았는데 고부에서 난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汝居生泰仁地 何故起亂古阜乎)”에 대해, “태인에서 살았지만 고부로 이사한지 몇 년 된다(居生泰仁移萬古阜 爲數年矣)”고 하였다.

“그렇다면 고부에는 너의 집이 있는가(然則古阜有任汝序乎)”라고 묻자

“난리에 불에 타고 말았다(入於燒灰中矣)”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그 자체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연 전봉준이 세가를 이루고 살던 구거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쉽사리 떨쳐 버릴 수 없는 대목이 너무도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다.

數日賊李斗瓚所追 窮 海南界地 盡無可走 斗瓚與李圭泰及倭人合 舊擊大破之斬三萬六千余級’

이것은 전남 강진 땅에서 동학군 참패, 참살상을 예시한 것이다. 물론 과장을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한 고을에서의 참살이 36,000이라니 얼마나 혹독한 보복인가. 이 처참한 보복 속에서 전봉준의 구거가 침해 없이 오늘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상을 들쭉서 놓은 동학 비적의 괴수집을 관카나 토호의 민병들이 과연 온전하게 놔두었을까?

일본인 사학자 국지겸양(菊池謙讓) 일생도 1940년대 초에 정읍·고부 일대를 샅샅이 밟으며 동학란과 전봉준의 유적사회를 찾아 다녔지만 전봉준의 태생에 관한 구명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대로 보아 동학혁명당시의 가담자들이 능히 생존해 있을 때인 일제시대에 일본인 전문가가 나서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면 이상의 정읍 쪽 기록의 허구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8·15 광복 이후에 슬그머니 생가가 나타나고 일가가 나타나서 양손(養孫)이 정해지면서 역사의 테를 매 놓은 것이다.

- 덕천면 시목리 태생설은 그 신빙성을 신복룡 교수가 그의 저서 《전봉준의 생애와 사상》에서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정읍에서 알려진 문장가로 동학혁명 때 활약하여 전봉준과 친숙한 사이였다는 옹택규(1852~ 1928)의 손자인 옹경원(1912년생, 정주시 광교리 172의 2)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옹경원이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시목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고, 그이 어렸을 때 '전봉준의 집에 차려진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한 사실'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신빙을 해야 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사정이다.

또 신교수도 그 후 '한때 거처한 곳으로 보고 출생지는 아니었다고 수정해 놓고 있다.'

《전봉준 평전 지식산업사 1996. pp 56-57》

- 고부 진장문하 차복리 부근설은 <우윤의 전봉준 장군 출생지 정립>에서 내놓은 새로운 주장으로서 전봉준이 3살 때인 1857. 5. 16에 조부가 향년 68세에 타계하여 그 묘지가 고부 남부면 진장문하(鎭長門下) 차복리(次福里) 앞 갑묘용간(甲卯龍良) 좌(坐) 유(酉) 파지(破地)이므로 고부에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리고 조부(碩豐)가 죽은 직후에 근친인 종형제 간들이 일제히 고창 당촌 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의 기록을 이용해 보면 《병술보에는 병호(丙鎬; 봉준) 윗대의 장지를 적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거주한 곳을 추정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묻힌 곳과 사는 곳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명당 터라면 거리를 불문하고 장지로 삼았던 시대였던 만큼 양자사이

의 관련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고런 명당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집안이 차츰 기울어지고 있는 무렵이라면 사는 곳 부근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전봉준의 조부가 고부군 남부면 진장문 아래 차복리 앞에 묻힌 것으로 보아 전봉준의 가족은 진장과 차복리 부근(사발 통문을 모의한 고부면 신중리 주산 마을로 들어가는 입석리의 진선 마을은 비롯한 부근 마을에 해당)에 살았다는 본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전봉준은 조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을 것이다.」

「아무튼 전봉준 집안은 조부가 돌아가자 어떤 이유에선지 전창혁의 종형제들이 고부를 떠나(일부는 석풍의 죽음 전일 수도 있음) 고창 덕정면으로 이주하 였는데 이 때 전창혁 또한 아장이장 걷던 전봉준을 데리고 고창 당촌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전봉준이 유년기일 때 고부를 떠나 당촌으로 옮겨 살았기에 유소년기의 흔적을 고부보다 당연히 고창 당촌에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을 촌로들의 증언도 고창 쪽이 훨씬 풍부하고 생생하다. 결국 두 서너 살 때부터 살았던 고창 당촌이 고향과 출생지로 여겨졌을 것이고 전봉준도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런 만큼 당촌은 전봉준이 태어난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유소년기를 보내며 친구들과 사귀고, 꿈을 키웠던 곳으로 전봉준의 생애에서 빠트릴 수 없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전봉준은 고부진장과 차복리 부근의 마을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에 고창 당촌으로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촌도 한 가정을 꾸릴 나이에 떠나야 했다. 그 후 이곳저곳으로 옮겨 산 것이 확인되는데, 이런 까닭으로 출생지에 대한 다양한 이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놓고 검토해 보면 우윤씨의 추정을 통한 조심스런 주장은 1886년에 발행된 [명술보]만의 검토로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때는 전봉준의 집안이 이미 고창파를 마감하고, 고부로 이거한 이 후가 되어 고부파로서 새로운 출발이 시도되고 있던 31세의 무르익은 때라서 조부의 묘소가 진장문하 차복리 앞에 써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윤씨가 전개해온 과정으로 볼 때 그럴싸한 추정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필자기 앞 장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전봉준 장군이 살아 있을 때 발행된 족보는 우윤씨가 지적한대로 [명술보]가 유일본이 아니라 그 보다 24년전인 [임술보]가 있었던 것은 우윤씨가 발표한 천안전씨 족보 편찬 일람 표에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음을 명심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의 하나 [임술보]의 기록을 우윤씨가 검토조차 외면하였다면 이는 상식밖의 일로서 큰 실수가 되었

거나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어진다.

이밖에도 정읍쪽의 출생과 이거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기박사는 <동학과 동학란>의 초판본에서는 양교리 태생설을 내놓았다가 1975년의 재판본에서 이평면 조소리 출생설로 바뀌었는데 이는 1950년대에 정읍유지들의 모임 체에서 중앙에서 교과서에 등재하기 위해 조희가 왔을 때 증론으로 모아진 조소리설을 따랐었노라고 뒷날 찾아간 필자에게 김박사가 실토한 내용이다.

장봉선은 「전봉준실기」에서 감곡면 계룡리(감산면 계봉리)에서 이평면(궁동면) 양교리(양간다리)로 이거하였다고 했다. 또 최현식은 「전봉준이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전주 구미리로 이거했다고 적어놓고 있다.

《최현식「갑오동학혁명사」향토문화사간 1963 p230》

최현식은 또한 「태인 감산면에서 지금실로 18세때쯤 이주해온 것으로 종래의 설을 수정하고 있다.

《갑오혁명사 pp230~231》

- 고창읍 죽림리 당촌 태생설은 다른 곳의 주장과는 달리 우선 기록면에서 확실한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오지영이 지은 《동학사 p168》에서 '전봉준은 전라도 고창현 덕정면(본래 오동면인데, 면사무소가 덕정리에 있어 일명 덕정면이라고도 불리웠음) 당촌 태생으로, 세대 사립가 사람으로 자라서 고부 양교리와 전주 구미리며 태인동 구천 등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유랑생활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근의 고로들 증언도 갑오년 난리 때 이 곳에서 농민군 두목들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인다고 하였고, 1960년대에 고창 기로사에 출입하는 고로들은 전원일치로 당촌 출신임을 강조한바 있다.

정읍에서 갑오동학명사를 쓴 최혁식도 당촌 태생설을 정설로 받아드리고 있다.

《갑오동학혁명사 1983 pp 230~231》

※ 전봉준의 출생지나 주소가 분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의 아버지는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여러 곳을 이사 다녔는데 특히<비가>를 믿어 천하의 명당을 찾아 한때나마 자리 잡고 살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모든 기록들이 귀결해 주고 있다.

※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선대 묘소지에서도 음택 명당지를 찾아다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5대조(태인 고헌면), 고조(남원 북면), 증조(순창 하치동), 조고(임실 강진면), 백부(임실 강진면), 종현(고창 덕정면), 제(고창 덕정면), 당숙(정읍 서이면), 재종제(정읍 서이면), 재중(고창 덕정면), 당질(고창 덕정면).

※ 오지영은 본래 고창 출신이었는데 익산으로 이거하여 살았다고 한다. 그는 고창과 전봉준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고 또한 기록할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지은 《동학사》에 새로 밝혀진 초고본의 서문을 보면 1924년에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세 때문에 뒷날 출간(1940)되었지만 동학혁명에 직접 가담자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써낸 유일한 책이다.

그는 《동학사》(p.178)에서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양호도찰로서 전라·충청 양 도 사이에서 접(동학의 전도인·수도인) 사이에 이루어진 연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서 지역 조직이 아님)과 접 사이의 일과 도인과 도인 사이의 일을 총괄하다가 공주 싸움에 패한 후 익산·전주 사이의 군을 다 해산하고 서해안으로 피신하여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잠시동안 양주 묘속암에 은거하여 세월을 보내던 중 마침내 천도교 교역자가 됨.

또한 《천도교 백년사, 1981 천도교 p. 245》에는 ‘동학혁명이 반봉건적 운동에서 반침략적 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한 동학군의 2차 구월기포 때 오지영은 익산에서 오경도·고제정 등과 함께 봉기하였다고 돼 있다.

선비의식이 투철한 오지영의 가계는 항상 의를 숭상하는 고창인의 기질이 이어오고 있어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백산봉기때 고창현에서 1,5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나선 주모자 오하영·오시영도 또한 그의 집안이었다고 한다.

## IV. 전봉준의 출생지는 고창 당촌

### ○ 족보에 의한 추적

동학농민혁명의 사건처리가 역모행위로 귀결이 됨에 역적의 흔적을 없애는 일이 당시의 시류였기에 생활주변의 정화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아무래도 족보자료에 의존 할 수밖에 별뽕쪽한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1963년 9월 1일 고창문화원을 개설하고 신임 인사차 「고창 기로사」를 방문하였을 때 동재(東齋)원로들의 주문과제 1호가 「동학 난리를 겪은 우리들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녹두장군이 고부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 문화원장이면 잘못된 역사를 우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원로들에게서 당촌 출신이라는 심증을 얻었고 농민군들의 술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이를 우선 과제로 정립하고 고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봉준 장군이 당촌 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조사에 착수하였다.

먼저 고창 군내에 살고 있는 천안전씨들의 세거 상황을 알아보았다. 문효(백헌)공파 후손들이 공음면 신대리, 용수리 상하면 정동 대신면 덕천리 등지에, 삼제공파 손은 신림면 벽송리 일대에, 대제학파는 고창읍 도산리 아산면 하갑리에, 도평군파는 심원면 월산리 무장면 무장리 성내면 부덕에, 판결사공파는 아산면 구암리 등에 산거해 오고 있다.

맨 먼저 착수한 것은 고창 신림면 벽송리에 자작일촌으로 세거하고 있는 천안전씨 삼제공(三宰公)의 족보 입수였다.

초가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기란 농번기보다 농한기인 정월달의 한가한 때를 골라야 만나기가 수월하므로 자료 조사 활동도 여간 제약이 많았다. 정초에 심방을 해 보았더니 색안경을 쓰고 외면하는 것이었다. 「왜 남의 집 족보를 캐 묻느냐」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눈치가 역력해 보였고 몇 해 동안은 이와 같은 스톱앤고의 연속이 있었다.

이는 분이 있어서 적당히 구슬려 보았더니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용인 즉 방문할 때마다 옛날의 족보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한결같이 일제강점기의 것과 8·15 해방 이후의 마분지로 인쇄된 근래 족보들뿐이었는데 「벽송리 전씨의 문장인 전귀몽(全貴夢)씨가 근래 족보를 나누어주고 옛날 족보는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서 모조리 거두어 갔는데 어느 날 분서해 버려 지금은 없다는 것이다.」

귀몽씨를 정읍에서 만나 다그쳐 물었더니 정읍군에서 기별이와 녹두장군의 족보를 요구한 다기에 족보는 없고 해서 때마침 계사보(1953년도 발행)를 만드는 중인데다 역적으로 몰려 이미 후사가 절손된 처지라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 우리 삼제공파로 끼여 붙였다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의 토로를 들을 수 있었다.

삼제공파 족보를 조사해 보았더니 전봉준은 삼제공(三厚)의 4세손이며 흥덕파조인 현감공(鐵石)의 5세손 철명(哲命)공의 차자인 극효(克孝)의 이들(性和)의 절손된 곳에 끼어 넣어 5대를 가공인명으로 채우고 그 아래에 전봉준 부자를 맞추어 넣고 녹두장군의 양손까지 정읍 북면 남산리에 사는 흥덕파 후손으로 끼어 넣고 있었다.

뒷날 익산 용안에서 세거하는 삼제공파 후손들이 적당한 거래를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으며 1982년도에 「전봉준장군 숭모회」에서 사무국장이 찾아와 내용 규명 요구가 있어 그 진상확인을 위해 사무국장(全炳龍)과 함께 수소문 끝에 인천에 살고 있는 전귀몽씨 맥을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이승을 등진 몇 해 뒤였다.

미망인으로부터 문제의 계사보를 귀몽씨가 직접 필사한 원본을 인수할 수 있었다.

여하튼 필자가 의심한 내용이 적중되기도 하였으나 3km 남짓의 당촌(堂村)전씨는 몰락을 하고 8대째 세거 해온 벽송리(碧松里) 전씨는 동학 난리에 까닥도 안했는데 당촌의 문효공파 후손이 삼제공파로 대명천지에 둔갑한 것이 이상하여 끝까지 추적해 낸 결실이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판단을 세웠다. 전씨들의 세거 집성촌보다는 문혀 사는 전씨들을 중점

추적기로 하였다. 조사경험을 통해 집성촌들은 동학농민군 난리에 모두 혐의를 벗어 무사한 입장인고로 오히려 숨어사는 한 두집의 전씨 연고자들이 무엇인가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촌 앞마을 덕정리(德井里)에 세거해 오는 조진환(曹鎭煥; 1899년 기해생)씨는 증언과 인근 고로들의 이야기 속에서 덕정마을에서 평생을 고입살이 하던 윤삼(潤三, 본명 전장수(全長壽; 1885~1941)의 아들 전동근(全東根)이가 신림 농암촌(籠岩村)에서 2대째 고입살이를 하고 있는데 덕정에서부터 조상대의 족보를 숨겨 가지고 다닌다는 제보를 얻었다.

※ 전동근의 아버지 전장수(자 潤三, 1885~1941)는 덕정리에서 고입살이를 시작하던 10세 때부터 집 주인이 '김윤삼'으로 변성명시켜 평생을 호적도 없이 '윤삼'이란 이름을 갖고 살았다 하며 당촌에 살던 전봉준의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멸족을 당할 때 어린 '윤삼'이는 덕정리 서당에 왔다가 화를 면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등 너머 죽림리에 꾸어 왔던 양식을 갚으러 간 사이에 화를 면해, 온 집안이 몰살당하고 세간은 물론 가옥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모두 죽여 불질러 버렸는데, 다행히 살아 남아 불타는 집 속에서 족보(6권)를 건져냈다는 것이다.

그 후 '윤삼'을 만난 어머니는 덕정리에 사는 이박사(성균관박사)댁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윤삼'이와 한 마을에서 숨어살게 되었다. 두 모자의 형편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숨겨 주어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

'윤삼'이는 1931년 그의 아들(동근)이가 여덟 살이 되면서 신림면 농암촌으로 옮겨 고입살이를 했다. 아들 동근이도 자라서는 2대째 머슴살이를 하며 숨어살면서도 아버지가 물려준 족보를 '고추꾸러미' 속에 싸서 칩간 모퉁이에 감추어 오면서 지금까지 소중히 간수해 오다가 필자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소문한 보람으로 신림면 농암촌의 「전양산(全良山; 1902년생)을 찾게 되었다. 그는 전봉준의 방손임을 시인하고 자기보다는 전장군과 더 가까운 일가가 있다며 소개해 준 사람이 '윤삼'의 아들 「동근」이었다.

부안읍에 산다는 「전동근」을 만나게 된 필자는 그 숨겨 다닌 족보가 전장군이 살아 있을 때인 1886년에 간행된 「명술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족보의 서문은 조선말기의 문인이요 순국지사인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시호 문충공)이 쓰고 있는데 이 족보에 의하면 전동근은 전봉준의 종증조(德臣)의 7세손으로 전봉준과 11촌간임을 알 수 있었고 전양산은 9촌간 그리고 동근과 양산은 8촌간으로 동근은 양산의 종조인 기환(基煥)의 현손이었다.

족보명칭은 「천안전씨세보(명술보)」로서 전봉준의 가계를 정리해 보면 기본은 5세 천성군

(天城君 世柱)의 장자 6세 천양군(天陽君 仁亮)파에서 차자인 7세 문충공(文忠公; 昇)파로 이어져 그의 5세손 12세 연산공(連山公 敏)파로 다시 이어지고 15세 연산공의 증손(五常)인 송암공파로 또 이어지면서 그의 손자인 17세 언국(彦國)에서부터 송암공손파로 세분이 되어 고부파로 기재가 되어 있고 송암공 7세손파로 22세인 석운(碩雲) 석풍(碩豊)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필자가 [병술보를 찾아냄으로써 그 당시까지 전봉준 일가의 가계가 삼재공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작극은 이제 일장춘몽으로 살아가게 되고 전장군은 이제 떳떳한 제사밥을 들게 되었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이 되겠는가

이후 근 20년 동안을 제보가 들어오거나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서 전남북을 두루 섭렵하여 천안전씨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면 어김없이 인근의 노인당과 집성촌을 찾아 동학농민혁명을 짚어 갔다.

다음에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임술보에 대한 입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기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임술보는 1980년 가을이었으니까 올해로 24년 전의 일이었다. 완주봉동에 사는 전태연의 결정적인 제보를 얻어 가까스로 찾아본 [임술보의 기록은 그 동안의 초조와 긴장감을 일시에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자를 감격의 늪에 흠뻑 젖어 놓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찾아 놓은 [병술보의 기재사항이 별 다른 하자 없이 잘 전개되었는데 유독 전봉준의 가계를 고부파로 (송암공손파)로 적혀 있었기에 그동안 당춘 태생설을 주장하면서도 약간은 깨름한 일면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술보는 철종 13년(1862)에 간행된 16권 한질의 「천안전씨 세보」이다. 이 족보의 서문은 이듬해(1963) 늦은 봄 발행을 앞둔 최종단계에서 당시 대사헌(大司憲)이었던 송내희(宋來熙)의 글을 받았는데 그는 은진송씨로 자는 자칠(子七)호는 금곡(錦谷)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다.

전봉준의 가계를 약기해 보면 5세 천성군(世柱)의 장자인 6세(仁亮)의 제2자 7세 문충공(昇)파로 분파가 된 이후 그의 5세손 12세 연산공(敏)파로 세분되었다가 그의 증손 15세 송암공(五常)파로 이어졌는데 그의 손자 17세 언국(彦國)파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고창파(高敞派)로 등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술보의 등재사항이 확인됨으로써 [병술보에 고부파로 기재된 내용은 이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술보에 송암공의 손자인 언국이 고창파의 어른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뒷날 고부파로 바뀌더라도 이미 고창파의 확실한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전봉준 장군 가계는 高敞파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고부로 이거한 것이 확실한 것임을 밝혀 낸 것이다.

○ 기록에 의한 고증 ※ 영인 자료 1- 전봉준 가계도

필자가 고창 당촌 태생설을 발표할 당시로서는 [명술보]의 확인 사항만으로도 충분하겠기에 그리고 [임술보]의 기재사항을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읽어만 보았을 뿐 당시에는 한질의 복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복사본 입수가 안되어 심증만 굳힌 채 [명술보]만으로 발표를 하고 말았으나 오늘 이와 같이 재조명하게된 마당에 그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하나만으로 서두른 것이 보다 철저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있다.

그동안 필자가 20여년간 현장을 발로 뛰어 엮어낸 자료조사를 통해 전봉준 장군의 태생지가 고창 당촌 태생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기록을 고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960년대에 고창 지역에 생존했었던 관계된 고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녹두장군의 부친이 고창 당촌에 서당훈장으로 오게 되어 대소가가 모여 살게 되었다 한다. 그 선대에서는 빈한한 선비집안이라서 여기저기 형편대로 흩어져 살았고 수준들은 있어서 풍수에도 상식들이 넘쳐 겨우 생계는 유지하고 살았다고 한다. (김영표, 정현조, 서치형)

전봉준의 선계를 보면 그의 7대조는 부인이 광산김씨라는 기록외에는 공란으로 되어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다만 [임술보]에서는 고창파 어른으로 [명술보]에는 고부파 어른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고창파의 파조로 있다가 고부로 이거한 이후에는 고부파의 파조로 전기만 된 것 같다.

6대조 후증(厚)은 태인현의 고현면(古縣面)에 내외간의 묘소가 각기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인근에 살았던 듯 싶고, 5대조 만기(萬紀)는 남원 북면(北面)에 합조된 것을 보면 근동인 것으로 추리가 되고, 고조 상규(相圭)는 순창 하치동(下峙洞)에 합조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순창땅에 우거한 듯 한데, [임술보]에는 관직 기록이 없고 24년 후의 [명술보]에는 통덕랑을 지낸 것으로 표기되고 있어 이는 성립될 수 없는 허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726년생인데 [임술보] 발행년도 만해도 100세가 넘게 되어 터무니없는 조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조(道臣) 내외와 종조(碩雲)내외가 임실 강진면 밤고개(栗峙)에 동원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근동에 자리하고 살았다고 보아도 무방하겠기에 어디 일정한 곳에 세거지를 잡지 못한 듯했다.

종증조(德臣)내외는 임실에서 정읍 서이면(西二面)으로 분가해 이거한 듯 싶고 그곳에서

아들(碩文)내외도 묻히고 손자(基煥)도 동원을 이룬 것으로 보아 3대를 누린 것으로 짐작되는데 기환의 부인 전주최씨는 전봉가를 따라 역시 고창당촌에서 살다가 서당촌 뒷산에 묻혔다. 또 증조(碩雲)의 아들 4촌 기필(基弼)내외가 당촌 뒷산 고개인 회암치(回巖峙)에 묻힌 것을 보면 입실에서 4촌간인 기창(基昶)을 찾아 당촌으로 합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봉준가의 족보상에 나타나는 모든 당내자들이 고창 당촌으로 모여 동학농민혁명이 폐쇄될 때까지 자작일촌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전봉준의 조부모를 병술보에 수록된 고부 남부면 진장문하(鎭長門下) 차복리(次福里) 앞등 갑묘용간(甲卯龍民)자리에 투장하기 위해 1868년 윤 4월 16일 고부로 위장이사를 떠난 유명한 일화를 고로들의 증언을 통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필자가 고창 1966년 4월 고창 덕정리에서 전봉준의 가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던 중 덕정마을에 당촌 천안전씨의 취객 한 분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치형(徐致亨, 1888~1968-향년 80)택을 방문했을 때 노구를 무릅쓰고 친절하게 근동에 알려지고 있던 일화한마당을 들려주었다. 자기 조부(徐源國, 1844~1871)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면서 조부의 처가가 당촌에 살았던 전기술(全基述)이 장인이며 1남 3녀 중의 맏사위였다고 한다 서당촌의 서당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수년간 한문공부를 배웠는데 그때 스승이 처가로 3종숙 뻘되는 전봉준의 아버지(基永 또는 基禔)여서 더욱 친숙하였다 한다.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니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하니 제자들 중에 착실한 사람 두 사람을 더 골라 같이 그 일을 거들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당 동문이었던 나이가 든 죽림사는 김재영(金在英)과 자기보다 한 살 아래인 정인민(鄭仁民)을 골라 셋이서 상의가 되어 스승을 위해 하루 봉사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셋이서 윤 4월 보름날 아침에 모여 회암재 아래 맥모등에 올라 전봉준의 조부 묘를 파묘하고 대꼬쟁이를 깎아서 낙근된 뼈를 긁어 내어 다듬고 백지에다 곱게 써서 순서를 매기고 집에 모셔 놓았다가 이튿날 아침 일찌기 모아서 소달구지에 위장하기 위해 이삿짐과 함께 꾸러 멀리 고부까지 갔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이사하는 것이지만 속셈은 스승의 재략에 의해서 가난해서 돈이 없으므로 아버지 묘를 명당에 투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후에 고부 남부면에 당도하여 어느 마을집에 이사를 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스승이 인도하는 갑묘용간 자리를 찾아 밤중까지 투장을 깨끗이 끝냈다는 것이다. 그날 전봉준은 갓 열 세살을 넘은 작달막한 키에 당차게 아물진 몸매로 아버지를 따라와 투장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너를 위한 일이니 잊지 않고 명심해 두라」고 일러 주었다. 꿈을

꾸어 내는 것 같아 모두들 어리둥절했다는 것이다.

「이곳 삼신산 자락을 중심으로 뻗어 내린 곳에 호남의 팔대혈(八代穴)명당이 감돌고 있는데

- 첫 자락이 옥구입피 술산(戌山)
- 둘째 고부 영주산의 선인포전(仙人鋪託)
- 셋째 흥덕 호암 금반옥호(金盤玉壺)
- 넷째 부안 석재와우(臥牛石峙)
- 다섯째 무안 화승예불(回僧禮佛)
- 여섯째 순창 오선옥(五仙玉)
- 일곱째 장성 손용낙사(巽龍落梭)
- 여덟째 영광 비봉귀소(飛鳳歸巢)인데

그중에 으뜸이 고부선 인포전이라 : 선인이 털방석에 누어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지손이 창창하게 빛나는 형국이라도 한다. 이런 스승의 속셈을 들으니 엄청 날 수밖에 - 이렇게 해서 명당 투장을 하고 왔노라는 유명한 일화가 유식한 선비 사이에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전봉준의 아버지(基永; 基祖)는 매사에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구상력이 넘쳐나는 인물로서 고창 당촌에서 계획적으로 고부입성을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록을 통한 고증자료로 [병술보]보다 24년 앞서서 만들어진 장장 18권의 「천안전씨 대동보」를 내놓고자 한다.

이 [임술보]는 1862년 3월에 금산 광업재에서 간행되는데 전봉준(鐵爐)이 7살 때여서 생존시의 가장 오래된 귀중한 족보이다.

특히 1권, 16권, 18권의 세권은 직접적으로 기록된 고증이 등재되고 있다. 전봉준이 두 살 때인 1857년 5월 17일에 타계한 조부(碩豐)의 묘가 당촌마을 뒷등인 맥모등(脉母燈)에 써 있다는 기록만 가지고도 고창태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임술보]에 기재된 고창파의 내력은 제 16권의 끝 부분에 등재되고 있고 맨 위 우두머리 어른은 언국(彦國)으로서 대를 이어 8대가 실려 있으며 공람간에는

「此派單牒 正印後入來故載錄 此篇日後修譜時更爲考正」

(이파의 단첩은 족보인쇄가 마쳐진 뒤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편(卷 16) 끝부분에 게재하니 뒷날 족보를 다시 만들 때 상고하여 바르게 하라고 엄히 수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족보 卷 18 말미에 수록한 유사분정기(有司分定譜記) 중에 고창파의 수단 원고수집과 분담금 징수 책임자(收單收錢)로 전봉준의 아버지(全基永)명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영이 족보인쇄가 끝난 후에 수보소를 찾아 수단을 실을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비록 수단

원에 불과하지만 전기영의 고매한 인품이 능히 짐작되고 동화농민혁명이 끝내 역적모의 사건으로 귀결이 지어져 아무런 흔적을 찾을 길이 없는 막막한 중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의 고증을 찾아 내 놓은 것은 역사 발전을 위한 일대 쾌거요 귀중한 밑거름이 아닐 수 없다.

## V. 맺는말

전봉준장군이 고창태생이라는 통설 정립을 위해 몸 바쳐온지 반평생, 1963년 하반기에서부터 1980년대 하반기까지 무려 4반세기가 넘는 세월이었다.

당초엔 고증자료조차 태무한 처지에서 오직 불굴의 의지와 집념을 불태우면서 고로들의 순수한 증언을 토대로 심증적 상황만을 믿고 의지한 채, 백방으로 뛰어다닌 보람이 있어 그동안 삼재공파의 조작된 술수를 혁파해 내고 천신만고 끝에 발굴한 “병술보”와 “입술보”는 전봉준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귀중한 자료로서 그의 행보 규정에 큰 몫을 보태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병술보를 두고 위보일 가능성이 짙기만 하다는 등, 고창파를 위해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등, 고창파들이 주도하여 만든 그들만을 위한 족보라는 등의 별라별 난도질이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족보가 뭐 별것인가 어느 문중치고 다 제손으로 풀마리까 기인 것을 어느 족보치고 벼슬 없는 선영을 보았는가. 묵으면 묵을수록 벽짝처럼 두둑해지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입술보가 있고 병술보가 공존하는 마당에 전봉준이 고부 진장문과 차복리 부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며, 또한 이곳에서 유년기를 살다가 고창 당촌으로 이사간 것처럼 니마음대로 식은 이제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

역사적 양식에 따라 당당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아파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의, 자신의 명망을 팔아먹는 식의 모호한 설정은 제발 그만하였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다.

천안전씨의 고창파들도 그들은 갑오년 난리에 역적으로 몰려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을 달보고 짓는 개처럼 주인공들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지 옛날인데 족보만 나무란다면 무얼 하자는 것인가.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전인수격의 주관적인 견해나 해석일 뿐이고 추정으로 끝맺음을 이끌어내고 있던데 아무렴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줄 믿는다.

아무리 병술보의 전봉준 조부 묘 타령을 해도 입술보가 존재하는 한 언감생심 당촌을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가 뭐라해도 고창 당촌은 동화농민혁명을 영도했던 전봉준의 태생지요, 민권운동사의

성지이다.

사대와 봉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절실한 시대적 요청속에서 반만년 역사이래 최초의 민권운동으로 일어난 새 역사의 장을 열고 그 주역의 요람이 된 당촌마을은 근대시민사회의 여명을 알리고 불멸의 민권혁명을 탄생시킨 곳이다.

※ 영인 자료 1- 전봉준 가계도

<p><b>重</b></p>	<p><b>高</b></p>
<p style="text-align: center;">公 派</p> <p>重 碩雲 子 子基 子鐵 子碩文</p> <p>碩雲 子 子基 子鐵 子碩文</p> <p>子基 子鐵 子碩文</p> <p>子鐵 子碩文</p> <p>子碩文</p>	<p style="text-align: center;">敵 高</p> <p>高 連山公曾 孫松菴公 諱五帝孫 彥國派 子厚徽 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連山公曾 孫松菴公 諱五帝孫 彥國派 子厚徽 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孫松菴公 諱五帝孫 彥國派 子厚徽 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諱五帝孫 彥國派 子厚徽 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彥國派 子厚徽 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子厚徽 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子萬紀 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子相圭 子道臣 子碩雲</p> <p>子道臣 子碩雲</p>
<p style="text-align: center;">林</p> <p>林 碩文 子基 子宗 子鐵 子性</p> <p>碩文 子基 子宗 子鐵 子性</p> <p>子基 子宗 子鐵 子性</p> <p>子宗 子鐵 子性</p> <p>子鐵 子性</p> <p>子性</p>	<p>碩雲 子基 子鐵 子性</p> <p>碩雲 子基 子鐵 子性</p> <p>子基 子鐵 子性</p> <p>子鐵 子性</p> <p>子性</p>







